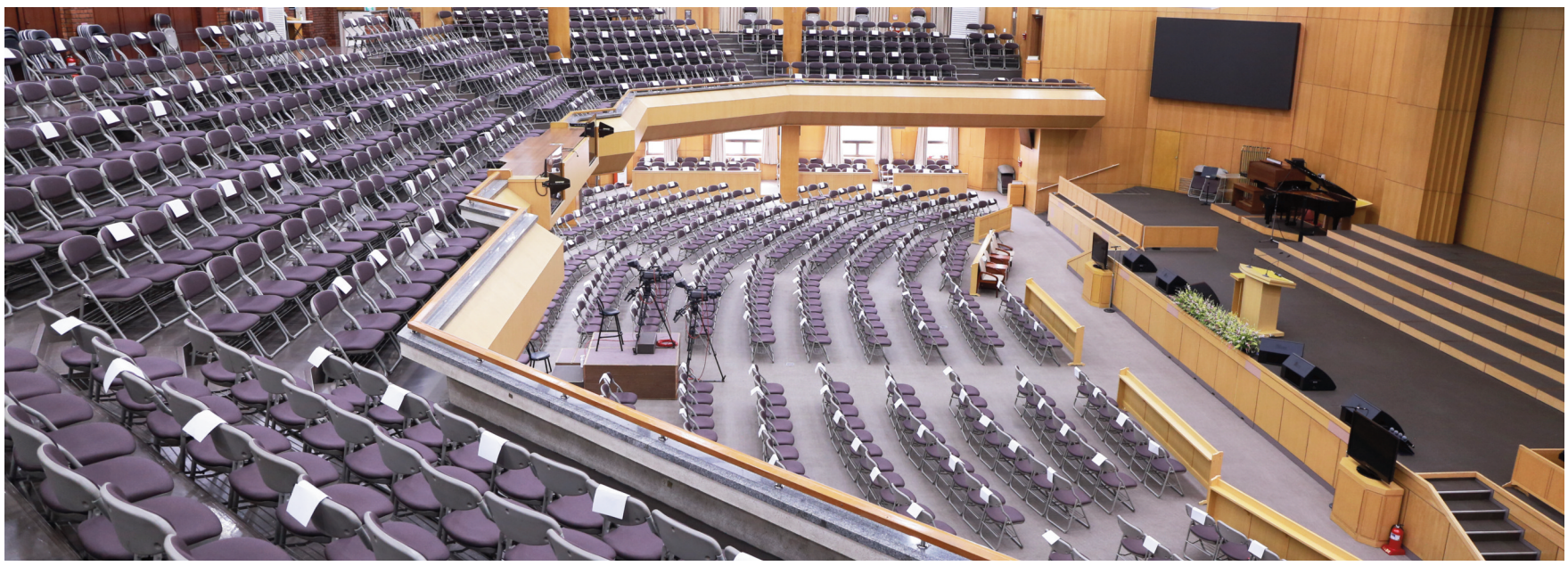
20200329-1288호-현준_온누리신문 20. 3. 27. 오후 6:50 페이지 1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 news.onnuri.org | 2020년 3월 29일(주일) 제1288호



온누리교회는 정부의 7대 방역 지침인 손세정제 비치, 성도 발열 체크, 예배당 간격 유지, 성도 신원 파악 등을 철저하게 준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 코로나19, 기도와 사랑으로 이겨냅시다!

## 4월 5일(주일)까지 온라인 예배 및 모임 실시
## 순장모임 및 순예배, 개인영성관리 콘텐츠도 제공

온누리교회가 4월 5일(주일)까지 국내 10개 캠퍼스 예배 및 모임을 각자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드린다.

주일 1~7부 예배와 새벽기도회(1부 오전 5시 20분, 2부 오전 6시 30분)는 CGNTV 홈페이지(www.cgntv.net),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user/Onnuriservice)에 접속해서 참여하면 된다.

차세대 온라인 주일예배는 예수님의꿈아이, 꿈이자라는땅 오전 9시, 11시 30분, 오후 2시, 파워웨이브 오전 9시, 11시 30분에 차세대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온누리교회차세대)에 접속해서 드리면 된다.

대학청년 온라인 예배는 토요일 오후 5시, 주일 오전 11시 30분, 오후 2시, 4시, 홀리스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 30분 대학청년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온누리교회대학청년)에 접속해서 참여하면 된다.

외국어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드린다. 영어예배(https://www.youtube.com/user/OnnuriEM)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4시, 일본어예배(https://www.youtube.com/channel/UCrUjyxgLiZPdsu84aFkfpBw), 중국어예배(https://www.youtube.com/channel/UCz9aiOc3lmRdKi0rt600DOQ), 스페인어예배(https://www.youtube.com/user/neira7003), 프랑스어예배(https://www.youtube.com/channel/UCZOzpnYpylq_wQsw4gSAnWg) 실황이 주일 오후 2시에 제공된다.

공동체 순장모임과 순예배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또한 성도들의 개인영성관리를 위해 생명의 삶(QT), '하루 20분 공동체성경 읽기', '나라를 위한 매일 기도 마리아행전 123'에도 매일 참여해야 한다. 나라와 교회를 위한 9시 기도 '이 땅을 고치소서'도 계속 이어진다.

온누리교회는 지난달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국가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이후 성도들의 안전과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국내 10개 캠퍼스의 예배 및 모임을 4월 5일까지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 예 배 안 내

4월 5일(주일)까지 국내 10개 캠퍼스 예배 및 모임을 중단하고 각자 자리에서 예배드립니다.

1. 온라인으로 실시되는 주일예배(1~7부)와 새벽예배(1부 오전 5:20, 2부 6:30)에 참여합니다.
- 온누리교회 유튜브 : www.youtube.com/user/Onnuriservice
- CGNTV : www.cgntv.net

2. 개인영성 관리를 위해 생명의 삶(Q.T)과 더불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새벽예배', '하루20분공동체 성경읽기', '나라를 위한 매일기도 마리아행전123'에 매일 참여합니다.

3. 3월 공동체 순장모임과 순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4. 차세대 온라인 주일예배
- 예수님의꿈아이 오전 9:00, 11:30, 오후 2:00
- 꿈이자라는땅 오전 9:00, 11:30, 오후 2:00
- 파워웨이브 오전 9:00, 11:30
- 차세대 전용채널: www.youtube.com/c/온누리교회차세대

5. 대학청년 온라인 예배
- 주일예배: 토요일 오후 5:00, 주일오전 11:30, 오후 2:00, 4:00, 5:30
- 홀리스타: 오전 6:30(월~금)
- 대학청년 전용채널: www.youtube.com/c/온누리교회대학청년

6. 외국어 온라인 주일예배
- 영어예배 오전 11:00, 오후 4:00
-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예배 오후 2:00

### 나라와 교회를 위한 릴레이 기도

온누리교회가 3월 30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국내 10개 캠퍼스 본당에서 '나라와 교회를 위한 릴레이 기도'를 한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코로나19 퇴치와 치유,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 공동체별로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나와 1시간씩 중보기도를 하면 된다. 릴레이 기도에 참여하고 싶은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공동체 등록 성도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서빙고와 양재 10명, 캠퍼스는 5명 이내로 인원을 제한한다.

### 고난주간 새벽예배

4월 6일부터 '2020 고난주간 새벽예배'를 드린다. 4월 6일(월)부터 4월 11일(토)까지 오전 5시 20분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에서 진행된다. 설교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한다. 고난주간 새벽예배 실황은 CGNTV와 온누리교회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이 기간 동안 성도들은 매일 한 끼 이상 금식 기도를 하고 금식한 금액은 헌금한다. 금식헌금은 공감소비운동에 사용된다. 미디어 금식도 병행된다.

기획_ 코로나19, 이렇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3-7면 특별기고_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신학적 성찰 시리즈 8-9면 전문가 기고_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은 지구의 청지기인 사람의 문제이다! 11면

20200329-1288호-현준_온누리신문 20. 4. 2. 오후 5:58 페이지 2



# “부활의 50일을 전통시장과 함께!”

## 4월 12일~5월 31일 공감소비운동 캠페인 실시

온누리교회가 부활절을 맞아 아주 뜻 깊은 캠페인을 벌인다. ‘공감소비운동’이 바로 그것이다. ‘부활의 50일을 전통시장과 함께!’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4월 12일 부활주일부터 5월 31일 성령강림주일까지 50일 동안 이어진다.

공감소비운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사회 취약계층을 돕는 캠페인이다. 부활절 헌금을 교회가 지역상품권으로 변환해서 성도들에게 나눠주면 성도들이 지역 전통시장에서 사회취약 계층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전달하는 운동이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도 돕고, 지역사회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감소비운동 캠페인은 이렇게 진행된다. 4월 12일 부활주일에 성도들에게 지역상품권을 나눠주고, 성도들은 지역상품권에 자발적인 성금을 더해 가까운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해서 사회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면 된다. 온누리교회에서 가까운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되고, 가능한 부활주일 주간에 집중적으로 동참하면 더 좋다.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독교인 건물주들의 임대료 감면이나 면제, 주일 교회 주변 식당 이용, 지역 농수산물 구입, 헌혈 참여, 작은 교회 임대료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사회와 교회를 돕는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문의: 010-5394-7841, 010-2589-3532, cjm@onnuri.org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 1학기 온라인 양육을 실시한다!

## 11개 캠퍼스 17개 반 개설, 이재훈 목사 등 강의

2020년 1학기 양육 운영안이 발표됐다. 4월 17일(금)부터 11개 캠퍼스에서 17개 반이 개설된다. 모든 강의는 온라인 영상강의로 진행된다. 개설되는 과목은 모두 12개(로마서, 갈라디아서, 요한서신, 성경통독, 큐티스쿨, 창조신앙스쿨, 빌립보서, 요한복음, 이사야 1, 이사야 2, 하나님의 성품, 비전통독)다.

온라인 영상강의는 코로나19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교회의 노력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 영상강의를 통해 성도들에게 목양과 공동체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온라인 양육 영상강의는 이재훈 담임목사를 비롯해서 10개 캠퍼스 담당목사 등이 한다. 이재훈 담임목사 로마서, 서빙고 박종길 목사 갈라디아서, 양재 이상준 목사 성경통독, 수원 신기섭 목사 빌립보서, 부천 윤길중 목사 이사야1, 대전 김상수 목사 하나님의 성품, 평택 손신국 목사 빌립보서, 남양주 이해영 목사 요한복음, 인천 서경남 목사 요한서신, 강동 노치형 목사 이사야2와 비전통독, 양지 도육환 목사 성경연구방법론, 서산 임용성 목사 하나님의 성품 등을 강의한다. 수강생들의 목회적 지도와 돌봄은 공동체 담당목사들이 맡는다.

온라인 양육 영상강의는 4월 17일(금)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1과씩 유튜브에 업데이트 된다(유튜브 ‘온누리교회 양육본부’ 검색). 1과는 25분씩 2편으로 구성된다. 숙제는 그 다음 주 목요일 자정까지 공동체 목사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강의를 듣고 깨달은 점, 감동과 은혜 받은 내용, 적용점, 질문사항 등을 적어서 보내면 된다(서식 제공). 공동체 목사가 이메일로 과제 피드백 및 답변을 보내고 지도한다.

온라인 양육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에서 소속 공동체를 검색해서 신청하면 된다. 수강료는 무료다. 중복학점도 인정해준다. 이전에 동일한 제목의 과목을 수강했더라도 이번에 온라인 양육 영상강의를 들으면 새로이 학점을 인정해 준다.

문의: 02-3215-3280, 공동체 담당목사 및 양육총무

/ 정현주 기자

〈전체 강의 표〉

| 캠퍼스 | 담당목사 | 개설 강의 |
|---|---|---|
| 전체 | 이재훈 | 로마서 |
| 서빙고 | 박종길 | 갈라디아서 |
| | 박성은A | 요한서신 |
| 양재 | 이상준 | 성경통독 |
| | 조현수 | 큐티스쿨 |
| | 조바울 | 창조신앙스쿨 |
| 수원 | 신기섭 | 빌립보서 |
| | 김태용 | 요한복음 |
| 부천 | 윤길중 | 이사야 1 |
| 대전 | 김상수 | 하나님의 성품 |
| 평택 | 손신국 | 빌립보서 |
| 남양주 | 이해영 | 요한복음 |
| 인천 | 서경남 | 요한서신 |
| 강동 | 노치형 | 이사야 2 |
| | 노치형 | 비전통독 |
| 양지 | 도육환 | 성경연구방법론 |
| 서산 | 임용성 | 하나님의 성품 |




그리스에서 집시들을 섬기는 김수길, 조숙희 선교사 부부.

### CGNTV 개국 15주년 다큐멘터리

## ‘땅 끝의 증인들’

CGNTV가 개국 15주년을 맞아 3부작 다큐멘터리 ‘땅 끝의 증인들’을 방영한다. 3월 29일(주일), 4월 12일(주일), 4월 26일(주일) 오전 10시 30분 방영될 예정이다.

다큐멘터리 ‘땅 끝의 증인들’은 선교지에서 오랜 시간 헌신한 선교사들의 삶을 조명한다. 1편 ‘집사를 사랑한 부부’에서는 그리스 테살로니가에서 집시들을 섬기고 있는 김수길, 조숙희 선교사의 삶과 신앙을 조명한다. 두 선교사는 언어 교육과 교회 개척 등을 통해 집시의 사회적응을 돕고 있다. 2편 ‘바누아투로 간 사나이’에서는 바누아투의 정글을 헤치고 원시 부족의 친구가 된 원천희, 김난주 선교사의 삶과 신앙을, 3편 ‘우리가 사랑한 마지막 시간’에서는 생애 마지막까지 필리핀에서 의료사역을 멈추지 않았던 故 박누가 선교사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관련 광고 16면〉.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 코로나19, 이렇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는 코로나19가 하루 빨리 종식되기를 기도하면서 사회적 책임, 이웃 사랑 실천, 개인영성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3월 1일(주일)부터 현장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면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현장예배는 4월 5일까지(예정) 드리지 않지만, 교회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교회에 출입하는 목회자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등 정부지침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다. 해외비전교회에서도 각국 정부의 지침에 따라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라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도 완수하고 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한 9시 기도 ‘이 땅을 고치소서’를 매일 이어가면서 나라와 민족의 치유와 회복을 간구하고 있다. 여성사역에서는 ‘마리아행전 1.2.3’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온누리교회는 이웃 사랑 실천에도 앞장서고 있다. 3월 비전헌금 중에서 1억5천만 원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소속 교회들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써 달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에 기부했다. 또한 온누리교회는 소망교회, 영락교회, 장로회신학대학교, 주안교회, 창동염광교회와 함께 대구경북지역 4개 노회 소속 미자립교회에 3억 원을 기부했다.

부천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헌혈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자발적으로 나서서 헌혈운동을 실시했다. CGNTV는 오늘(29일)까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모금 캠페인 ‘사랑으로 함께’를 실시한다. 후원금은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성도들의 개인영성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 〈생명의 삶〉 Q.T와 더불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새벽예배’,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읽기’ 등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또한 화상 순예배와 홀리스타, 온라인 가정예배 등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관련기사 3-7면〉.**

20200329-1288호-현준_온누리신문 20. 3. 27. 오후 6:33 페이지 3



코로나19, 이렇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양지 온누리교회

# 함께 손잡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우리 가족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은 남편은 마음도 인상도 좋습니다. 코로나19로 해외 출장을 가지 못해 애를 태우고 영상회의로 대신하며 아쉬움이 가득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핸드폰과 너무 친해져 딸들에게 구박을 받는 가족의 유일한 남자입니다.

저는 원주와 서울을 오가며 바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3월부터 거의 원주에서 가족과 지내고 있습니다. 갑자기 요리사가 되어 집안에 음식 냄새가 가득 풍기게 하고 있고, 갱년기 초반으로 속의 부글거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쎈언니가 됐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라고 하면서 자꾸 의심이 든다고 했다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며 감사하는 인생여행의 초보자 대학교 1학년 첫째 딸, 장난기가 넘쳐 동생에게 장난을 걸어 화나게 하는 것이 취미이지만 엄마의 마음으로 동생을 잘 챙겨주는 고등학교 1학년 둘째 딸, 사춘기 중심으로 마구 빨려 들어가고 있어 투덜이 스머프가 된 동시에 감정과 공감이 매우 뛰어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배려하는 중학교 1학년 셋째 딸이 있습니다.

몇 퍼센트 모자란 저희 가족은 코로나19로 인해 변하고 있습니다. 매일 큐티와 말씀쓰기로 하루를 시작하고, 가족예배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정말 기적 같은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딸들의 큐티 내용은 저의 마음에 울림이 됩니다. 아이들은 순수하게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밤 드리는 가족예배는 어떤 형식이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매일 돌아가며 인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큐티 본문 말씀을 2-3번 읽고 적용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나라와 민족, 각자의 기도제목을 함께 기도하고 인도자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김찬 성도의 가족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족예배를 드리며 더욱 가까워졌다.

참 신기한 것은 이 시간이 우리 가족이 하나 되는 참 좋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빠 엄마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부탁하고 싶은 것들, 화나고 짜증나고 힘들었던 것들을 아주 솔직하게 나누며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저희 부부는 딸들에게 많이 혼납니다. '엄마는 아빠에게, 아빠는 엄마에게' 가 주된 주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정예배 시간은 주님이 저희 가족에게 주신 회개와 회복이 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큰딸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큰딸이 오면 오랜만에 다섯 식구가 모이는데 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가 더 혼날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지만 얼마나 귀한 시간일지 알기에 기대가 됩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일에는 영상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집에 찬양소리가 가득 울려 퍼집니다. 우리 부부는 안방에서, 딸들은 자기들 방에서 어찌나 큰소리로 찬양을 부르는지 멜로디인지 랩인지 그 소리에 웃음이 나서 마구 웃은 적도 있습니다.

2주 전인가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남편이 "일어나라"고 자꾸 저를 툭툭 쳤습니다. 예배당이 아닌 침대에 앉아 예배드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설교 이후 찬양 '피난처 있으니' 를 부르는데 갑자기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 품에서 코골며 어떻게 그렇게 잘 자냐"며 남편이 저를 보면서 웃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안이 이렇게 따스합니다. 그날 남편은 계속 저를 놀렸습니다. 그 놀림이 싫지가 않았습니다. 욱하고 화가 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지요. 이것이 예배를 드리면서 웃다 울다하는 저희 가족의 모습입니다. 딸들은 매주 설교노트를 작성합니다. 설교 내용과 받은 은혜를 적습니다. 물론 용돈을 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저희 가족은 더 가까워졌고, 많이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을 서로 안아주며 함께 손잡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양지 온누리교회 예배당과 목사님, 성도님들이 많이 그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사카 온누리교회

# 믿음의 연단을 완성!

지난 2월 27일 아베 총리가 일본의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휴교를 요청한 이후 오사카 온누리교회는 온라인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은 올해 7월 예정된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에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감염검사 조건이 까다로워 확진자 숫자가 많지 않고, 일본 국민들도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는 의미로 확진자 숫자가 증가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오사카 온누리교회는 혹시나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단감염 가능성을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교회를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새벽기도는 온라인으로 송출하고, 평일 모든 집회도 중단했습니다. 주일예배는 금요기도회팀과 스태프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금요일 저녁에 촬영했고, 주일학교 어린이가 있는 가정을 위해 어린이 찬양과 설교도 넣었습니다. 한국인 성도와 일본인 성도가 공존하는 교회 상황에 맞춰 찬양도 한국어와 일본어를 번갈아가며 촬영했습니다. 설교 또한 한국어로 말하고 일본어로 통역을 해야 했습니다.

4주째 온라인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간 동안 성도님들로부터 그동안 몰랐던 교회에 대한 애정이 새롭게 느껴진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예배드렸던 포로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지금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사카 온누리교회 성도 마스다 씨 가족들이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다.

컴퓨터나 인터넷이 없는 어르신들 가정에는 노트북을 들고 찾아가 같이 예배드리기도 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자녀들과 함께 가정예배 드리는 모습을 영상과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고백해왔습니다. "비록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반대급부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가족 간 영적 교류와 친밀함이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다며 은혜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공간, 공동체, 공유할 수 있는 시간 등 평소 당연하다고 생각되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지 비로소 깨닫습니다. 카메라를 보면서 설교하는 것은 성도님들을 보며 설교하는 것보다 긴장이 더 되고 어렵습니다. 평소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목회자를 응원해주었는지를 새삼 느낍니다.

옛날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던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하며 교회의 본질은 결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겪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연단을 완성해 나가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예배가 정상화되도록, 새로운 예배당이 잘 구해지도록, 오사카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한국의 성도님들께서 기억해주시고 중보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이영선 목사(오사카 온누리교회)

20200329-1288호-현준_온누리신문 20. 3. 27. 오후 6:33 페이지 4



코로나19, 이렇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시드니 온누리교회

# 영적으로 각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바라보기!

호주는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호주의 모든 교회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난 3월 23일(월) 낮 12시부터 모든 모임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를 어길 시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모든 종교단체는 예배를 포함한 그 어떤 모임도 할 수 없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직 공립학교는 문을 닫지 않았지만, 3월 24일(화)부터 학교에 등교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드니 온누리교회는 2주 전부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상당수 성도님들이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주 정부의 방침이 비교적 덜 곤혹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공적인 예배를 못 드린 지 거의 한 달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성도님들이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시며 이 상황을 못 견뎌하고 계십니다. 또한 최근 한 결혼식에서는 한국에서 신부쪽 식구들이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결혼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장례식에도 10명 이상은 참석할 수 없어서 마지막을 외롭게 보내는 일들이 겹치고 있어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



시드니 온누리교회 김기주 학생(10살)이 노트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근에는 사재기 현상으로 인해 일부 품목들이 동이 나는 현상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작 생필품이 필요한 분들(연로하신 분,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화장지, 쌀, 밀가루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인종차별과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단교회 문제들로 인해 현지 한인 교회들이 어려움에 봉착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4월 첫째 주일부터 예배 후에 순별로 시간을 정해 화상으로 순모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 대한 지원책도 고심 중입니다. 호주 정부의 경기 부양책들을 안내해 드리고 있고, 모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전화 혹은 화상채팅으로 심방을 하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과 이동수단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각 순과 긍휼사역팀에서 생필품을 확보해 가져다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폐쇄되는 상황을 대비해서 가정예배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배 참여에 대한 갈망함이 꺼지지 않도록 주일예배뿐만 아니라 주중예배도 온라인으로 대체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낙후된 영상 장비들을 교체하려고 했는데 전 세계적인 동영상 기기 품귀현상으로 인해 최대 10주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장비가 없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많은 호주 교회들이 문을 아예 닫고 있고, 온라인예배 또한 드리기 어려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시드니 온누리교회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구상 중에 있습니다.

호주 교회를 위해 한국에 있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시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고, 호주인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호주 땅에서 인종차별과 인종혐오 범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보기도해 주십시오. 호주 정부의 지도자들이 온전히 국민들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각 교회가 폐쇄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기회를 통해 영적으로 각성하고, 회개하며,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 전현규 목사(시드니 온누리교회)

간 증 / 손옥경 집사(시드니 온누리교회)

# 온라인예배를 드리며 느낀 감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교회들이 당분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벌써 2주째 집에서 온라인예배를 드리면서 모두 함께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다. 교회에 나가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직접 듣고, 또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일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는 시간을 주셨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은 큐티하는 내 모습을 보여주셨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몸과 마음을 준비하지 않고, 큐티하는 도중에 할 일이 생각나서 움직이고, 큐티말씀을 소설 읽듯이 읽는 내 모습을 보여주셨다. 주일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 말씀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도 하게 되었다. 솔직히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집중이 흩어져 놓치게 되면 '나중에 온라인으로 다시 들으면 되지 뭐' 라는 해이한 마음이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온라인예배를 드리기 몇 주 전부터 출석율이 저조해지는 교회 예배당을 바라보며 남의 믿음을 탓하고 정죄했었다. 하나님은 그런 내 모습을 보여주시며 내가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 누군가를 원망하기보다는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셨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린다.

이 위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친절한 경고이자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는 교회에 모여야 한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참 예배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드려져야 하고, 어디서 드리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라도 성도들이 각자 흩어진 장소에서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뿐이다. 온라인예배를 집에서 가족과 함께 드리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큐티 시간과 가정예배를 소망하게 된 것은 덤이다.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회개와 영적 성장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힘들수록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겠습니다. 이 위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고 가겠습니다. 더욱 기도에 힘쓰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힘든 이 상황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다시 교회에 모여 주님을 향한 뜨거운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담임목사님께 드리는 편지

#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비록 9시 시간을 딱 맞추지는 못하지만 나라를 위한 기도에 이어서 〈생명의 삶〉 큐티가 끝나면 새벽 1시정도 됩니다. 저는 매일 나라와 교회를 위한 9시기도 '이 땅을 고치소서' 에 참여하면서 교회생일 때 국수 먹으면서 뵌 것 말고는 가까이서 뵌 적 없는 담임목사님과의 성경공부를 통해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비록 유튜브 안에서 환란 중에 나라를 위한 기도회 안에서 만나는 담임목사님이지만 더욱 각별함이 느껴집니다. 담임목사님께서 해주시는 성경공부는 너무 따뜻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비록 교회는 문이 닫혀져있지만 우리가 담임목사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먼발치에서 예배 끝나면 담임목사님 뵙기 창피해서 몰래 도망갔던 저에게 이재훈 담임목사님과 친밀한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아픔과 환란 중에 계신 분들께는 죄송스럽고 조심스러운 내용이지만 이재훈 담임목사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늘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으로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있고, 주님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기뻐들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환란 가운데서 주님의 위대하심과 저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라는 기도를 더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담임목사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더욱 은혜롭고 평안이 느껴집니다. 이재훈 담임목사님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세요.

/ 이헌규 성도 올림

* 이 편지는 나라와 교회를 위한 9시 기도 '이 땅을 고치소서' 참가자가 유튜브에 게재한 내용입니다.

20200329-1288호-현준_온누리신문 20. 3. 27. 오후 6:33 페이지 5



코로나19, 이렇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 기도로 이 난관을 극복!

아부다비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50명가량으로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외국인들의 출입이 잦은 국제적인 도시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지역감염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이하 UAE) 정부는 항공편 출입을 3월 25일부터 임시적으로 차단하였으며, 모든 쇼핑몰과 레스토랑 문도 닫은 상황입니다. 아울러 지난주부터는 모스크(이슬람 사원)를 비롯한 모든 종교적 모임도 중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아부다비 온누리교회도 여러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모든 주중모임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시책에 따라 지난주부터는 금요일예배(여기는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금요일에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다)도 온라인으로 전향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의 상황도 좋지 못합니다. 현재 교인들 상당수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아이들의 재택수업도 벌써 3주째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에 창립예배를 드린 바라카 지역의 루와이스 온누리교회도 이 사태로 인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목회적인 케어와 기도만



아부다비 온누리교회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 안내문이 붙어 있다.

각자 처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라마단 금식기간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부다비 사회가 지금보다 더 멈춰버릴게 분명합니다. 그에 따라 어려움도 비례해서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동 모든 나라들이 철저한 봉쇄 정책으로 인해서 국가간 이동이나 교류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내전으로 인해서 원래 상황이 열악했던 예멘이나 시리아가 더욱 어려워질 것 같아 걱정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도로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 기도제목을 공유합니다. 한국에 있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도 기도의 힘을 보태주십시오.

첫째, 아부다비 온누리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와 말씀으로 영적으로 하나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 아부다비 온누리교회에 새로이 부임한 장제홍, 이정주 부목사님의 비자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루 빨리 비자문제가 해결되어 불안정한 지금의 상태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목회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 UAE의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함에 따라 재정적, 영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습니다.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영적 충만과 지혜가 가득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넷째, UAE 정부가 코로나 관련 대응을 적절하게 잘 하도록, 아울러 레이버 캠프 숙소에서 집단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이주민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바라카를 비롯해 한국인들이 진행하고 있는 건설현장이 안전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중동지역에 고립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하게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태완 목사(아부다비 온누리교회)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지금,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

**답: "먼저 성도들은 성경적인 교회론을 바르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또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공간을 초월해 임재 하신다는 믿음이 확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지구촌과 우리 사회는 아주 큰 혼란 속에 빠져있다. 국가와 사회, 직장과 학교가 마비되고, 마스크 대란이 극성을 이루고, 각 나라의 국경이 봉쇄되고, 세계여행과 무역거래가 끊기고, 주가폭락도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혼란이 교회도 예외는 아니어서 주일예배가 갑자기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고 말았다. 교회와 예배를 사랑하는 성도들은 매우 큰 충격과 혼란에 빠져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초기에 쉽게 종식되는 듯했다. 하지만 슈퍼감염자의 동선이 부각되면서 신천지가 처음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더니, 지금은 일부 개신교 교회들의 무책임한 태도로 사회적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당분간 다중시설 이용을 자제해주고, 사회적 거리두기로써 온라인예배에 동참해줄 것을 정부가 거듭 요청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결과 교회 내 집단감염이 무더기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주민들을 비롯한 사회단체들은 개신교를 신천지만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며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불신이 날로 증폭되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신앙인들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며, 예전처럼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하는가?

먼저 성도들은 성경적인 교회론을 바르게 이해해야만 한다. 성경에서 교회론이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지역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교회로 나타난다. 성경은 결코 건물이나 조직이 교회가 아니라 거듭난 사람이 교회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예배는 신앙인에게 목숨과도 같아 정부의 예배중단 요청에 타협할 수 없다는 입장과 교회는 국가와 정부의 입장에 적극 협조함으로 사회 안에서 공적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이 충분히 양립될 수 있어 보인다. 주일예배를 사랑하고 성수하는 한국 교회의 열심은 매우 소중하고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를 왜곡되게 강조하다보면 자칫 성경적 교회론과 참된 예배에서 멀어지게 된다. 왜냐하면 예배중단이 된 것은 신사참배시대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배교문제라기보다 전염병이라는 안전문제와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중세의 암흑기시대에 페스트(흑사병)가 퍼지고 있을 때 '무조건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낫는다' 라는 미신적이고 잘못된 정보 때문에 오히려 교회 안에서 전염병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결국 유럽인구의 1/3이 죽었다는 것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의학전문가의 견해를 무시한 채 잘못된 신념과 인포데믹(왜곡된 의학정보)이 초래한 비상식적인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성도들의 바람직한 모습은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공간을 초월해 임재 하신다는 믿음이 확고해야 한다. 권위 있는 예배학자들은 코로나19 사태의 시기에 드리는 온라인과 영상예배는 재난으로 인한 특수한 예배이며, 한시적이지만 주일예배를 가정예배와 같은 형태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보혜사이시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우리 영혼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리적 공간을 넘어 믿음의 고백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은 얼마든지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온라인과 영상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영성과 경건을 소홀히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성경적인 방향성과 더 깊은 신학적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토대 위에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가이드와 창의적인 양육방법을 고안해(CGNTV, 유튜브, SNS, 화상 순모임 등) 성도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야말로 특수한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 사태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굳게 믿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역사관은 일반 역사가들과 달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의 역사를 해석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고난의 시대에 성도들은 이 기간을 통해 나와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물론, 이 시대에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교회와 이웃들을 돌아보며 소망과 용기를 주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영적 생활에 게을렀고, 피상적인 예배자에 머물렀던 나의 모습을 참회한다면 이 고통의 시간은 교회와 가정, 개인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김상수 목사
(대전 온누리교회)

20200329-1288호-현준_온누리신문 20. 3. 27. 오후 6:33 페이지 6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총회장 목회서신

# “기독교인에게 예배는 생명과도 같은 것”

총회 산하 9,200 교회와 기관 255만 명의 목회자와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중국 우한과 대구 신천지 집회로부터 촉발된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은 대구·경북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할 만큼 엄청난 피해를 남겼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대한민국이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우리 사회의 모든 일상이 깨어진 상태입니다. WHO가 코로나19를 판데믹으로 선포하고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로 확산되어 나라마다 국경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위기와 고난 속에서 저력을 발휘하여 역사를 새롭게 쓰며 굳건하게 발전하여 왔습니다. 오늘도 재난 가운데서 고난의 현장을 지키는 수많은 의료진과 방역담당자, 자원봉사자, 그리고 일선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로부터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구호물품과 성금 모금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것을 보면서 감동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는 그동안 정부당국과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대부분의 교회가 선제적으로 코로나19의 방역과 예방조치에 적극 협력해 왔습니다. 지역교회가 유사 이래 최초로 주일예배를 가정에서 영상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써왔습니다. 텅 빈 예배당에서 목회자와 극소수의 제한된 교우들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대다수의 성도들은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한두 주일이면 끝날 줄 알았으나 벌써 1개월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6만여 교회 중 몇 교회에서 확진자 발생과 감염이 발생하여 사회에 큰 염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며, 한국 교회를 대신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교훈삼아서 교회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경우에는 방역당국이 제시한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는 것은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인 교회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해외여행 자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와 개인청결 위생 캠페인에도 적극 동참하여 코로나19를 조속히 종식시키고 빠른 시간 안에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유감스럽게도 지난 3월 21일(토) 국무총리가 긴급담화를 통하여 “종교시설의 사용 제한을 강력히 권고하며, 만일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까지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언론과 방송에서 어느 특정 교회(담임목사가 구속 중임)의 예배 광경을 며칠 계속하여 방영하여 마치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방역지침을 거부하고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무시한 채 예배를 강행하는 것처럼 한국 교회를 폄하한 일도 일어났습니다. 3월 22일, 주일 아침에 서울과 경상도 지역의 몇 교회에서 주일예배 드리는 것과 관련하여 경찰과 공무원들이 찾아와서 교인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그동안 당국의 방역지침을 따라 방역과 안전 수칙을 지키며 교회 문을 닫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일예배도 온라인예배로 전환하고 공동식사도 없이 해산하면서까지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협력한 것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재해구호에 힘쓰면서 함께 재난극복에 힘을 모은 일을 가볍게 여기는 일입니다. 이는 총회장인 저 자신으로서도 모욕적인 일이요, 교회적으로도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주고 자존감에 심한 손상을 입히는 일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예배를 무시하고 포기하라는 것은 존재의 목적과 삶의 의미를 끊는 것… 방역을 넘어 기독교 신앙을 탄압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중단 되어서도 안 되고 중단 될 수도 없습니다.”**

**“정부 당국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 모든 노력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더 이상 공권력과 행정적인 권한으로 교회를 욕보이지 마십시오.”**

**“언론인에게 당부합니다. 어떤 교회도 예배를 강행하지 않습니다. 특정 교회를 일반화 시키는 오류를 저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만 하나님과의 거리는 더 가까이 합시다.”**

기독교인에게 예배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교회가 고백하는 요리문답 1번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곧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존재로 부름 받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정치인에게 정치를 그만두라는 것과 경제인에게 경제활동을 그만두라는 것은 그의 사회적인 존재를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문화예술인에게 예술 작업을 중단하게 하고, 언론인에게 공권력을 동원해서 언론을 통제하고 간섭하는데 “예” 하고 따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반발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에게 예배를 무시하고 포기하라는 것은 존재의 목적과 삶의 의미를 끊는 것입니다. 방역을 넘어 기독교 신앙을 탄압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중단 되어서도 안 되고 중단 될 수도 없습니다.

정부 당국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 모든 노력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더 이상 공권력과 행정적인 권한으로 교회를 욕보이지 마십시오. 정부가 교회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어떤 명분으로도 교회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묵과할 수 없는 교회사찰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군사독재 시절에도 경찰 공권력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공무원만 보내지 말고 한국 교회의 연합단체와 교단의 협력을 구하고, 각 지역의 기독교 연합회와 소통하며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공문과 명령으로 움직이는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라 지역교회의 당회가 공동체 예배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절차를 밟아서 협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언론인에게 당부합니다. 어떤 교회도 예배를 강행하지 않습니다. 특정 교회를 일반화 시키는 오류를 저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마다 안전과 방역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인 노숙자를 섬기고 주민들에게 공급할 마스크를 만드는 작은 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 강행’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니라면 지하철운행 강행, 학원 강행, 식당영업 강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왜곡과 혐오와 차별이 아니라 공정한 보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만 하나님과의 거리는 더 가까이 합시다. 또한 말씀을 읽고 기도에 힘쓰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경건하게 보냅시다. 그리고 소망과 생명으로 가득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합시다.

목회의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목사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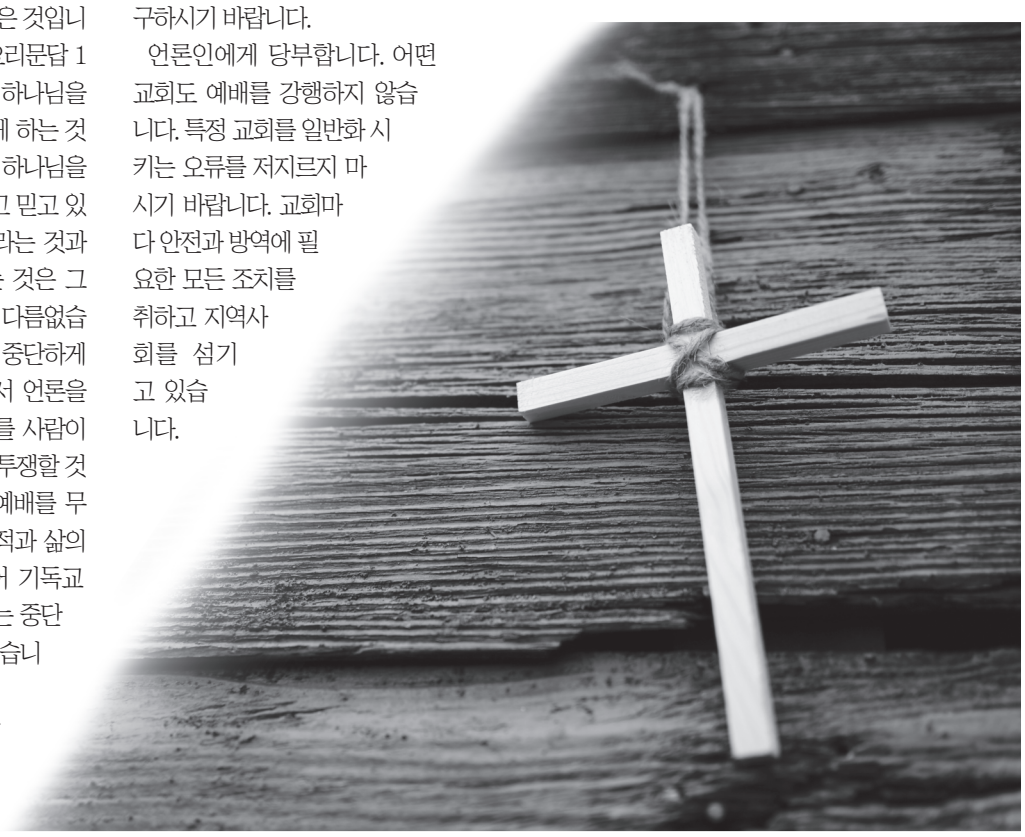
우리 모두 힘을 내서 교회 공동체와 힘들어하는 교우들을 위해 더 기도합시다. 방문하고 만나는 목회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휴대폰과 메일로 지치고 힘든 성도들을 부지런히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로님들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의 종들과 함께 위기와 환란의 시대에 생명의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난국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더욱 겸손한 자세로 그러나 세상 풍파 앞에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2020년 3월 24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김태영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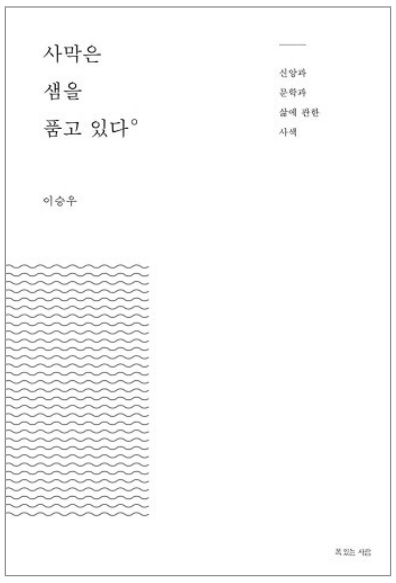


20200329-1288호-현준_온누리신문 20. 3. 27. 오후 6:33 페이지 7



책 읽어주는 목사

# 하나님께 쓰임 받는 언어




사막은 샘을 품고 있다
이승우 저 | 복 있는 사람 | 13,000원

인간의 언어는 성능이 나쁜 수신기 같다. 세상이 언어라는 매개체를 통해 전해지는 순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은 픽셀이 깨진 사진처럼 거칠게 전송된다. 창공을 가르는 새를 언어로 표현한다 한들 그 자유로움을 어찌 다 담을 수 있으며,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을 언어로 설명한다 한들 그 아름다움을 어찌 다 전할 수 있을까. 언어로 세상을 표현한다는 것은 언어의 틀 안에 세상을 가둬놓는 것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때로는 침묵이 가장 좋은 언어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모든 것이 온전해진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인간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로 온전하게 주의 뜻을 이뤄갔던 것처럼, 성능 나쁜 수신기인 우리의 언어도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 온전하게 쓰임 받는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경에 적힌 인간의 언어는 신의 언어가 되어 예수라는 진리의 길을 비추며, 이 시대 수많은 목회자들의 언어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고 있다.

또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언어는 사랑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을 그 무엇보다 아름답게 담아낸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언어는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일상의 은혜들을 조명한다. 그리고 그 은혜를 찬양하게 한다. 이승우 작가의 책 〈사막은 샘을 품고 있다〉가 바로 그런 언어이다. 고단한 여정의 길모퉁이마다 표지판을 세우는 심정으로 적어 내려간 작가의 책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과 감춰진 일상의 아름다움이 있다.

〈사막은 샘을 품고 있다〉는 40편의 짧은 글을 묶어낸 에세이다. 흥미로운 것은 저자가 장편 소설을 쓰는 전업 작가임과 동시에 신학을 공부한 신학도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저자는 땅의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이야기꾼이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인이라는 것이다. 그는 땅에서 하늘을 발견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낸 것이다. 혜화동 길을 걷다 발견한 간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영화 '카산드라 크로싱'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나눈다. 달력과 시계를 바라보며 초월적인 주님의 시간을 포착하며, 날마다 소비하는 우리의 모습에서 거짓된 풍요를 지적한다. 하늘을 향해 솟구치며 땅에 떨어지기를 반복하는 공원의 분수를 보면서는 이렇게 고백한다.

"우리는 떨어져 내리기 위해 솟구친다. 우리는 낮은 데로 하강하기 위해 저 높은 곳을 향해 비상한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기 위해 하늘에 대한 비전을 키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땅의 이야기는 그 어느 때보다 생소하다. '영화 같은 현실'이라는 수식어가 지금처럼 잘 어울리는 때가 없었던 것 같다. '일상이 무너졌다'는 표현도 쉽게 들을 수 있다. 그러나 땅에는 하늘이 있다. 우리의 일상에는 창조주의 사랑이 있다. 만물은 여전히 주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한다. 나의 눈앞에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살아 숨 쉬고 있다.

이제 우리의 언어를 바꿀 때이다. 성능 나쁜 수신기의 주파수를 조율할 때다. 땅의 이야기들을 수신하여 불안과 염려와 절망과 근심의 언어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수신하여 이 땅에서 펼쳐지는 하늘의 일들을 노래할 때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편지의 내용 안에는 세상의 무엇을 담던지 예수로 인한 희망의 언어가 가득해야 한다.

이승우 작가의 〈사막은 샘을 품고 있다〉를 통해 일상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선이 회복되길 소망한다. 땅의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는 깊은 하늘의 일들을 발견하길 소망한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 그 사랑은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이다.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끊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 옆에서 빛나고 있다.



최종현 전도사
(SNS공동체)

## 온누리신문 · CGNTV 공동기획

## 기독교 영화와 가정예배

좋은 기독교 영화 한 편을 감상하는 것도 훌륭한 가정예배가 될 수 있다. 추천하고 싶은 기독교 영화가 몇 편 있다. 가장 먼저 '나니아연대기' 시리즈다. 나니아연대기는 영국의 대표적인 작가이자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의 원작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말하는 사자와 마녀가 등장하는 전형적인 판타지 영화지만 그리스도의 구원과 부활 등 복음의 핵심을 담은 기독교적 작품이다. 나니아연대기 시리즈는 소설로 총 7편이 있는데 그중에서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2005년), '캐스피언 왕자'(2008년), '새벽 출정호의 항해'(2010년)가 영화화되었다.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은 인간의 타락과 그리스도의 구원이 주제다. '캐스피언 왕자'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 '새벽 출정호의 항해'는 순례자의 여정을 담고 있다. 나니아연대기 시리즈는 재미와 감동, 은혜까지 골고루 갖추고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말아야 할 기독교 영화다.

국내 영화 중에도 은혜 가득한 기독교 영화가 있다. 박누가 선교사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영화 '아픈 만큼 사랑한다'다. 박누가 선교사는 의료시설이 낙후된 필리핀 오지에서 30년 동안 의료선교를 하다 순교했다. 박누가 선교사는 췌장암, 위암, 간경화, 당뇨와 싸우면서도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자녀와 함께 박누가 선교사의 삶을 조명한 '아픈 만큼 사랑한다'를 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신앙교육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가이드

**제목 :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본문 : 요한복음 5장 5~8절**
**찬양 :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메시지**

예루살렘 '양의 문' 근처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을 지나시며 38년 된 병자를 만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원하는 일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당시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사람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립니다. 주의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저어 움직일 때 맨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치료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그 병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던 병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모습에 한탄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원하는 바를 물으십니다.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주님께 삶을 온전히 맡기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모든 가정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과 자신의 처지만 바라보던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온전히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눈앞에 놓인 연못조차 가지 못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했던 병자도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곤고한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확한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주님의 음성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가정되시길 축원합니다.

/ 문영재 목사

*오늘(3월 29일) 저녁 8시 30분 CGNTV에서 방송되는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를 시청하시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20200329-1288호-현준_온누리신문 20. 3. 27. 오후 6:33 페이지 8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신학적 성찰 시리즈: 1

# 흑사병에 대한 종교 개혁자들의 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 19)로 인해 대한민국을 비롯한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대면하게 되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절감하게 됩니다. 한국교회도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여러 어려운 상황들에 맞닥뜨리게 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럽고 가슴 먹먹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의 손을 내밀어 주시어 이 고난의 때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고 겸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만을 빕니다.

오늘 제가 속한 교단의 한 목사님으로부터 종교개혁자들은 당시의 전염병이었던 흑사병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묻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는 전대미문의 위협 앞에서 성도들에게 어떤 위로와 지침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자연스레 종교개혁자들의 전염병에 대한 시각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계기로 종교개혁자와 흑사병의 관계에 대해 몇 가지를 소개하면 혹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정리하였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전염병으로 인해 가장 비참하고 힘들었던 때는 아마도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었던 14~17세기였을 것입니다. 흑사병이라는 이름은 19세기에 와서야 붙여진 것인데, 이 전염병에 걸리면 피부가 검게 변하고 그 부분에 괴저가 발생하는 현상 때문에 흑사병이라 불렸습니다. 유럽의 프로테스탄트 교회개혁자들에게도 흑사병으로 인한 고난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흑사병의 모습을 그린 피터 브뤼겔의 'The Triumph of Death' (1562년), 프라도 미술관

**"편견을 가진 혐오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연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는 회개가 요청됩니다. 일상의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 츠빙글리, "지금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츠빙글리가 1519년 1월 취리히의 목회자로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흑사병이 도시를 덮쳤습니다. 이 흑사병으로 인해 취리히 인구의 적게는 1/4, 많게는 1/3에 달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당시 취리히 인구가 7,000명 정도였는데 2,000명가량 목숨을 잃었습니다. 츠빙글리는 흑사병으로 자녀를 잃는 슬픔도 겪었습니다. 그는 목회자로서 매일 병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다가 1519년 9월 말경 자신도 병에 걸려 앓아눕고 말았습니다. 그는 11월 중순까지 거의 두 달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은 후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당시 그가 쓴 시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의 힘, 나의 반석이시여*
*문밖에서는*
*죽음이 문 두드리는 소리*
*나를 위해 못 박히신*
*당신의 손을 높이 들어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당신의 음성이*
*내 생애의 한낮인 지금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신앙과 소망 안에서*
*이 땅을 포기하고*
*천국을 얻고자 하나니*
*나는 당신의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츠빙글리는 회복되었고 이 경험은 그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습니다. 츠빙글리가 1520년 교황청에서 주는 성직록을 거부하고 온전히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로 돌아서는 결단을 내린 것도 이 경험과 무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츠빙글리의 이 절실한 신앙고백은 오늘날 스위스와 독일 개신교회 찬송가집에 수록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 루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신뢰하라"

1527년 루터는 『치명적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것인가?』라는 팸플릿을 출판했습니다. 이것은 루터가 브레스라우의 목사인 요한 헤스로부터 치명적인 흑사병이 덮칠 때 그리스도인이 도망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해 대답한 글입니다.

당시 어떤 사람들은 전염병은 하나님이 내린 형벌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 도망하는 것은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불신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루터는 전염병조차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퍼뜨리는 것은 마귀의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루터는 스스로 묻고 답합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물에 빠졌을 때 수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익사해야 하는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의사의 도움을 받지 말고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저절로 나을 때까지 참고 버텨야 해' 라고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배고프고 목마를 때 왜 당신은 먹고 마시는가? 이제 우리는 '우리를 악에서 구해주소서' 라는 주기도문을 암송해서는 안 되는가? 만일 누군가가 불이나, 물이나, 고통 가운데 있다면 나는 기꺼이 뛰어들어 그를 구할 것이다."

실제로 비텐베르크에 흑사병이 덮쳤을 때 당시 작센의 영주였던 선제후 요한은 루터를 비롯한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들에게 즉시 인근 도시인 예나로 피하라고 명했지만, 루터와 동료였던 요하네스 부겐하겐은 도시를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서 성도들을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양떼를 돌볼 다른 목회자가 있다면 굳이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험지역을 떠나는 것도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고 조언 하였습니다.

순교를 각오한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전염병에 맞서 이웃을 돌보고 살피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강요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를 정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루터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 죽음을 피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어준 자연적 성향이고, 성경과 역사에서도 그러한 경우를 많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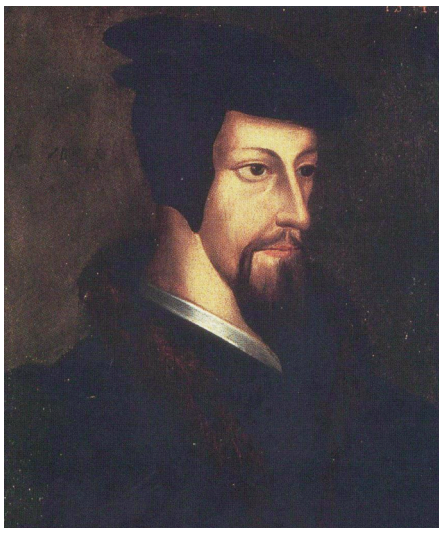
또 루터는 너무나 경솔하고 분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죽음과 흑사병에 대처하는 모든 수단을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해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약의 사용을 멸시하고, 흑사병에 걸린 사람이나 장소를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자신들의 강한 믿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을 만드셨고 우리에게 주셔서 그 지식으로써 우리 몸을 지키고 보호하여 건강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식과 약을 사용하지 않는 자는 마치 자살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권면합니다.

"약을 먹어라.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라. 사람과 장소를 피하라.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악한 자가 독과 치명적인 병을 퍼트렸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고, 약을 지어 먹을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임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 원한다면, 나는 당연히 죽게 되겠지만 적어도 내가 내 자신의 죽음이나 이웃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

20200329-1288호-현준_온누리신문 20. 3. 27. 오후 6:33 페이지 9





왼쪽 시계 방향으로 츠빙글리, 루터, 칼뱅, 베자.

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이것이 루터가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입니다. 루터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신뢰하라고 권면합니다.

### 칼뱅, "우리는 서로에게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칼뱅은 어린 시절 아마도 흑사병으로 어머니를 여의었을 것입니다. 그가 청소년 시절에 파리의 학교에서 수학한 것도 고향 누아용에 들이닥친 흑사병을 피해서 간 것이기도 합니다. 칼뱅은 프랑스에서 교육을 받은 후 1536년 스위스 제네바의 교회개혁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1538년 제네바로부터 쫓겨나 스트라스부르로 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 칼뱅은 흑사병에 걸린 환자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칼뱅이 다시 제네바의 목회자로 돌아온 이듬해인 1542년 제네바에 흑사병이 발병하였습니다. 흑사병이 너무나도 치명적이었기에 병자들을 선뜻 자원해서 돌볼 목회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피에르 블랑셰 목사가 흑사병 환자들을 돌보겠다고 자원하며 나섰습니다. 사실상 이때 칼뱅도 환자들을 돌보겠다며 자원했지만, 제네바 시의회는 가장 중심역할을 하는 칼뱅이 그 일을 할 수는 없다며 거부하였습니다. 칼뱅은 이 소식을 로잔에 있는 동료 피에르 비레에게 보낸 편지에서 알렸습니다.

"흑사병이 여기서도 격렬한 기세로 시작되었고 감염된 사람들 가운데 단지 몇 사람만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동료 가운데 피에르 블랑셰가 이들을 돌보겠다고 자원하였고 모두는 잠자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만일 그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내가 그 위험을 감수해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렵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각자가 서로에게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목회 사역에 있어서 무언가 필요할 때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칼뱅은 혹시 블랑셰가 병으로 인해 죽게 된다면 자신이 그 일을 맡아야 할지 모른다며 두려운 마음을 숨김없이 내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목회자가 목회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한, 감염의 두려움 때문에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곳에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그 책임을 감당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음을 밝혔습니다.

### 베자, 『흑사병에 대한 질문들』(1579)

베자는 젊은 시절 흑사병으로 추정되는 병을 앓으면서 비로소 하나님과 자신을 돌아보고 시인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벗어나 교회개혁자로 거듭났습니다. 흑사병이 자신의 소명을 찾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베자는 1549년부터 로잔아카데미에서 신학교수로 섬기던 중 1559년 제네바아카데미가 개원하자 그 학교의 초대학장을 맡아 제네바에서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흔히 베자를 칼뱅의 후계자 정도로 치부하지만, 실상 베자는 그 자체로 제네바 종교개혁과 개혁교회 유산의 확립자로 평가되어야 마땅합니다. 칼뱅이 제네바의 개혁자로 25년(1536~38, 1541~64) 일했다면, 베자는 칼뱅을 계승하여 무려 41년(1564~1605) 동안 제네바의 개혁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프랑스와 유럽의 개혁교회가 따르는 신학과 실천의 원칙을 제시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1568~71년 제네바에 흑사병이 다시 들이닥치면서 3,000명의 주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제네바 인구의 1/4 넘는 사람이 희생당한 것입니다. 이때 베자도 형제인 니콜라스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학장으로 섬기던 개혁교회 최초의 신학교이기도 했던 제네바아카데미가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모든 목회자가 질병에 걸린 환자를 돌볼 책임이 있는지, 제비뽑기로 한 사람을 택하여 이 일을 맡도록 해야 하는지? 목사회의 대표인 베자는 제비뽑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포함되어야 하는지? 처음에는 제네바 시의회의 명령으로 베자의 이름이 제비뽑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1570년 3월 베자는 시의회를 설득하여 자신의 이름도 제비뽑기 명단에 추가하였습니다.

베자는 "가련한 병자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포함하는 모든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목회자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목회자의 동등성이라는 개혁교회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목사회를 분열시키는 일이 된다며 시의회를 설득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자가 제비뽑기에서 흑사병 환자들을 돌볼 목회자로 선택되지는 않았습니다. 1571년 전염병이 다시 돌자 이제는 제비뽑기 방식이 아니라 각각의 목사가 자신의 교구에 있는 희생자를 직접 돌보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의회는 제네바의 목사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목회자들을 고용하는 방식을 택하려고 했으나, 제네바 목사회는 시의회의 제안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직접 양떼를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베자는 1579년 『흑사병에 대한 질문들』이라는 책을 출판합니다. 이 책은 크리스토프 뤼타르트의 주장, 즉 흑사병은 하나님의 형벌이기에 예방하거나 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 논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베자가 이 책을 저술한 것은 전염병이 창궐한 상황에서 목회자가 직무를 올바르게 감당하도록 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양심의 평화를 주고자 함이었습니다. 비록 흑사병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른 수단, 즉 약이나 의술과 같은 이차수단을 통해 치유할 수 있다고 베자는 주장합니다.

또한 경건과 사랑이라는 의무를 성취하는 한에서, 흑사병을 피해 도망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으며 오히려 지혜로운 처신이라고 조언합니다. 이성과 경험은 "빨리 [달아나고], 멀리 [달아나고], 늦게 [돌아오라]"가 질병을 피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임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의 의무로 보자면 무조건 병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공적인 직무를 생각한다면 자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덕목입니다. 베자는 목회자들에게 병의 원인에 대해서 논쟁하기보다는 우리의 죄에 대한 벌로 이 병을 내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여 성도들을 어떻게 회개의 자리로 인도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인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흑사병에 대처했던 츠빙글리, 루터, 칼뱅, 베자를 살펴보면서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맞이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되짚어 헤아려 봅니다.

첫째, 편견을 가진 혐오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연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사태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라며, 무엇 때문이라며 논쟁하거나 희생양을 만들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사태를 극복하고 아픔과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돌보며 그들을 부둥켜안아 일으킬 수 있을지에 전념해야 합니다. 흑사병으로 인해 유럽에서 희생양을 찾기 위해 유대인 혐오와 마녀사냥이 기승을 부린 아픈 역사로부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 '우리가 죄인입니다'라는 회개가 요청됩니다. 우리의 끝이 없는 욕심, 식물이든 동물이든 모든 자연과 환경을 인간의 편의를 위해 착취하려는 그 욕심이 이 불행을 낳았고,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이보다 더 큰 고난이 닥칠 수 있음을 두려운 마음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이 캄캄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대하 7:14)는 이 약속이 우리로 새 소망을 갖게 합니다.

셋째, 일상의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 반갑게 악수하고 껴안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눈물겨운지, 더불어 밥 먹을 수 있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상이 축제이며 감사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너무나 당연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도 깨닫지도 못했는지 모릅니다. 범사 감사를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악한 자의 덫에서 빼내 주시고, 심한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 주시니 우리가 그 날개 아래로 피할 것입니다. 주님의 진실함이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입니다"(시 91:3~4).

/ 박경수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20200329-1288호-현준_온누리신문 20. 3. 27. 오후 6:33 페이지 10



▌대구에서 들려오는 소리

##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가정에 바짝 다가왔을 때 : 선교적 단상

# 대구에서의 나의 경험이야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구를 강타하여 전국 매스컴이 온 한국을 시끄럽게 할 때 나는 우연히 대구에 있었다. 대구에 사시는 92세 어머니의 상태가 걱정되어 가족회의를 해야겠다는 연락을 받고 대구로 내려간 상태였다. 그런데 대구에 도착해서 하루 만에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발병이 발발했다. 가족들은 매일 텔레비전을 보면서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았다. 그리고 매일같이 건물 폐쇄와 여기저기서 새로운 확진자들의 이야기들이 들려오면서 도시가 스산하게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다. 혹시라도 어머니에게 이 몹쓸 전염병이 옮기게 되면 그 결과는 너무 자명한 것이기에 매일 노심초사했다. 집을 드나들던 이웃 할머니들도 사라져버렸고, 가족들도 전화만 할뿐이었다. 자가용 운전이 용이하지 않은 언니들은 택시 타기도 두려워 집밖을 나가지도 못하고 있었다. 가까운 작은 마트조차도 마스크 없이는 출입이 불가능했다. 확진자가 한 번 지나가기라도 하면 무조건 폐쇄하는 상황이었기에 경제적 손실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는 취소되고, 도시 전체가 완전히 멈추어 선 것 같았다. 설상가상으로 어느 날 감기증상으로 아프기 시작했다. 감기증상이 시작되자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의 대구행이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괴로움과 당황스러움이 엄습해왔다. 당시 할 수 있는 것은 자가격리뿐이었다. 아무리 소독제를 여기저기 뿌리고 마스크를 끼고 식사를 따로 한다고 해도 같은 집에 함께 지내면서 어떻게 완벽한 격리를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니 참으로 막막했다. 서울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는데, 매일 오던 요양보호사도 내가 감기증상을 보이자 발길을 끊었기 때문이다. 바로 보건소에 연락했지만, 대구에서는 이런 증상환자들이 너무 많아 검사대상자의 우선권에서 밀리니 그냥 상태를 지켜보면서 며칠을 기다리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다가 증상이 더 심해지면 그때 바로 선별진료소로 가서 입원을 요청하라는 것이다. 폐렴으로 진행돼야 병원에 갈 수 있었다. 대구는 확진자가 많아 자택에서 기다리며 스스로 나으면 다행이고, 혹시 병세가 악화되면 그때서야 병원에 갈 수 있다니 정말 기가 막힌 지시였다. 결국 검사도 못해보고 불안에 떨어야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오직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잘 먹고 잘 쉬고 나의 면역력이 스스로를 치료하도록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고, 그사이 다른 이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자가격리를 하는 수밖에 없었다. 코로나 바이



러스로 인한 극도의 스트레스가 우리 가정을 이렇게 엄습했다. 그러던 중 며칠 전부터 계속 감기몸살을 앓던 언니가 점점 더 심해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언니의 상태는 걷잡을 수 없이 되었고, 결국 일어나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설마 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되고야 말았다. 뉴스로만 듣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가정에도 이렇게 갑자기 침입한 것이다. 언니는 확진을 받았으면서도 워낙 많은 환자들이 입원을 기다리고 있던 터라 자택에서 자가격리하면서 대기하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구청에 연락했으나 계속 기다려 달라는 응답뿐이었다. 환자의 호흡은 점점 더 가빠지고, 의식도 조금씩 약해지는데, 더군다나 일주일 이상 아무 것도 먹지 못한 채 방안에 계속 누워만 있는 언니를 지켜보던 형부는 눈물로 관계자들에게 호소하기 시작했다.

"선생님! 죽더라도 링거 한번 맞고 죽게 해주셔야지요. 치료 한번 못 받고 죽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구급차에는 산소호흡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받게 해주세요."

119로 구급차를 불렀으나 이송할 병원을 찾지 못해 결국 구급대원은 눈물을 머금고 아픈 환자를 다시 내려놓고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그날 저녁 상태가 위급하여 다시 119 구급차를 불렀고, 구급차 안의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병상이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병원 앞에서 마냥 기다리던 몇 시간을 보내던 형부는 구급대원에게 병상이 마련될 때까지 차에서 내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애걸하는 상황이 됐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구급대원은 "걱정마세요. 밤새 계속 계셔도 됩니다"라고 안심을 시켜주며, 함께 자리를 지켜주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선행으로 강도 만난 자 같은 언니의 이웃이 되어주었다. 무작정 대기하고 있던 중 몇 시간 후 기적같이 병상이 마련되었다. 병원에 입원한 후 겨우 안심을 한 것도 잠시, 병원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이미 상태가 너무 나빠졌으니 각오를 하라는 의사의 말에 우리 가족은 다시 하늘이 무너졌다. 지금도 언니는 병원에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불과 며칠 만에 일어났고, 대구는 이런 환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은 갑작스럽게 변해버린 일상 때문에 총체적인 충격 속에 어찌할 바를 몰라 비통해 하고 있다.

### 믿음의 동역자들과 나누고픈 이야기: 선교적 단상

지난 몇 주간의 경험은 나에게 삶과 죽음의 위기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특히 3주간 대구에서 갇혀 있다시피 한 경험 속에서 나 자신이 코로나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타인에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봤다. 내 안에 일어나는 상념들을 지켜보면서, 이 작은 경험을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몇 가지로 나누고자 한다.

첫째, 우리는 공포감 없는 경각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지난 2일 서울지역으로 와서 느낀 것은 대구의 심각한 상황이 멀리 떨어진 이야기로만 들려진다는 것이다. 불과 3시간 떨어진 대구에서의 경험이 실감나게 전달되지 못한 채 경각심이 다소 둔감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오늘 뉴스를 보니 서울지역도 집단감염이 시작되는 우려가 있다고 한다. 지나친 공포감도 문제이지만, 그래도 지금은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할 때다. 부디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일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모임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결국 피해는 노약자들에게 고스란히 남겨질 것이며, 그들은 나의 가족이며 이웃이기 때문이다. 생명을 보호하는 일보다 중요한 것이 없을 것이다.

둘째, 지금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영상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어머니와 내가 영상으로 들려오는 목사님의 찬송소리와 함께 찬양을 할 때, 그리고 장로님의 기도에 맞추어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할 때, 목사님의 설교를 경청하며 "아멘, 아멘"할 때 그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은혜를 경험했다. 이렇게 절절하게 말씀이 다가온 적이 얼마만인지. 또한 언니의 상태가 위급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도움의 요청을 여기저기 청할 때마다 함께 아파하며 방법을 찾아주신 많은 분들이 있음에 감사했다. 나에게 선을 베풀어주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그나마 이렇게 이만하게 견디고 있는 것이다. 보내온 사랑과 격려로 인해 받은 위로는 말로 다 할 수 없다. 어려운 때일수록 도움의 손길을 얻을 수 있는 이웃과 동료가 있어서 감사한 일이다. 이 감사의 고백이 오히려 마음의 면역력을 높여줄 것이다.

셋째, 고난당하는 이웃을 돌보며 감싸 안아야겠다. 우리 주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침입으로 갑작스럽게 강도 만난 자 같이 되어버린 분들이 많이 있다.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확진자가 되어 입원을 했다고 해도 격리조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혹시라도 회복되지 않을 경우 가족들과 만나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참으로 갑작스럽고 비통한 이별이 되는 것이다. 이들은 강도 만난 자들이다. 난데없이 병마를 만나 심령까지도 크게 다쳐 깊은 슬픔 속에 있는 자들이다. 이럴 때 이웃을 향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실천은 실제 가장 강력한 복음증거의 원동력이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더 바르게 행동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고통 받는 자들을 감싸 안을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의 복음이 우리들의 삶으로 전달되는 순간이다.

/ 박보경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 다행히 바이러스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온 필자는 대구에서의 약 3주간 생활을 마치고 수도권의 집으로 돌아와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 박보경 교수는 "고민 끝에 대구에서의 짧은 경험을 글로 나눈다"며 "모든 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린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사경을 헤매던 박 교수의 언니는 3월 14일 별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 글은 2020년 3월 12일 〈한국기독공보 칼럼〉에 실린 내용을 전재했습니다.

20200329-1288호-현준_온누리신문 20. 3. 27. 오후 6:33 페이지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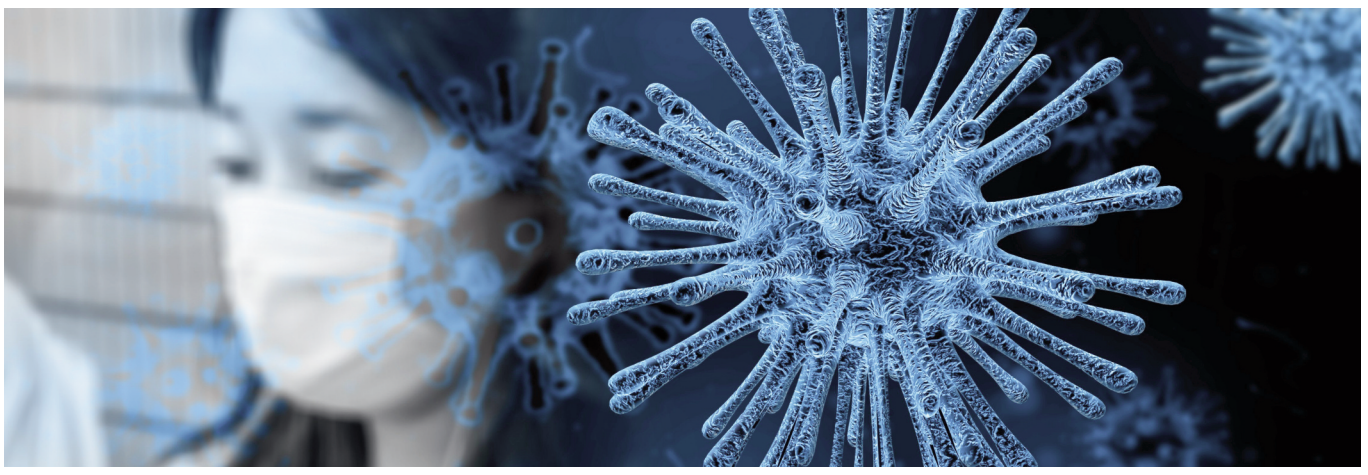


전문가 기고

#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은 지구의 청지기인 사람의 문제이다!



이은일 장로
(성북공동체,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우리나라를 강타하고 이제는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 코로나19는 신종 바이러스로 그동안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바이러스 감염증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코로나바이러스과에 속한 'SARS'와 'MERS'도 신종 감염병이었다. SARS의 경우 8천 명이 넘는 감염자와 774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고(치사율 9.6%), MERS는 2,494명이 감염돼 85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치사율 20.5%). 코로나19의 경우에는 치사율이 그만큼 높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탈리아의 상황을 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걱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의 치사율이 0.9% 수준이지만, 중국은 3.9%(우한 지역 포함), 이탈리아는 7%에 이르고 있다. 거의 SARS의 9.6%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우리나라가 치사율이 낮은 것은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비롯해 적극적인 검사를 실시했기 때문이다. 증상이 없는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 중 양성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치사율이 낮은 것이다. 만약 일본처럼 증상이 심한 사람들만 검사했다면 치사율이 훨씬 높게 올라갈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치사율이 2.6%인 점을 감안하면 이 수치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코로나19의 치사율 평균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중국 우한 지역이나 우리나라 대구, 경북 지역처럼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빨리 받지 못하면 치사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또한 기저질환이 있는 노령층의 경우 코로나19 감염병은 더 치명적이다. 이탈리아의 경우 사망자 90%가 70세 이상 노인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의 치사율이 더 높아진 이유다.

### 코로나19가 무서운 이유

코로나19가 무서운 것은 전파력이 이전의 어떤 질병보다 강력하다는 것이다. 같은 코로나바이러스인 SARS 바이러스보다 세포와의 결합능력이 1,000배가 크고, MERS보다 전파력이 10배가 높다. 생존력도 다른 바이러스보다 높다. 바이러스는 스스로 생장하거나 증식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체와 붙어있지 않은 바이러스는 2~3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사멸하게 된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경우 공기 중에 3시간 생존이 가능하고 유리, 플라스틱, 금속 등의 표면에 있을 때는 평균 4~5일, 최대 9일까지도 생존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따라서 좁은 공간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기침 등을 해서 바이러스가 감염된 비말(기침, 재채기 등을 할 때 나오는 침방울)이 퍼진다면 3시간 이내 그 공간에서 호흡하는 사람은 환자와 직접적 접촉이 없어도 감염될 수 있는 것이다. 당연히 기침을 통해 나오는 비말이나 눈물과 직접 접촉하면 감염될 수 있고, 감염자의 손이나 감염자가 만진 물건의 표면에 남아있는 바이러스가 내 손을 통해 나에게 전파될 수도 있다. 이런 바이러스는 기존의 다양한 소독제로 충분히 불활성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소독과 개인위생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손씻기가 중요하다.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것도 효과가 있지만, 손소독제를 2분간 손에 문지르는 것보다 30초 이상 따뜻한 물과 비누로 꼼꼼하게 씻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코로나19가 강력한 전파력을 갖는 또 다른 이유는 감염된 80%의 사람들이 가볍게 앓고 지나가고, 증상이 없을 때도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가벼운 감기 정도밖에 안 되는 병이 취약계층에게 전달되면 치명적이 될 수 있다. 즉, 20%는 중증환자가 되기 때문에 퍼지면 퍼질수록 사망자 수는 SARS나 MERS 때보다 훨씬 많아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환자들이 감염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감염 의심이 되면 빠르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노령층 등의 취약계층은 요양시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가정에나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감염되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는 방역당국의 능력만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하며,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모든 사람들이 질병 예방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문제가 생겼으므로 그 문제를 최소화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은 당연하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2년 SARS, 2015년 MERS 외에도 2009년 대유행했던 신종플루(인플루엔자) 등이다. 인류에게 충격을 준 첫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은 후천성면역결핍증(HIV/AIDS)이다. 1981년 미국에서 동성애자들과 마약환자들 중심으로 발생하여 널리 알려졌지만, 사실은 이미 아프리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있었다. 학자들은 1930년대에 이미 사람들에게 감염이 시작되었다고 추론하고 있다.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의 공통점은 모두 동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에게 감염되었다는 것이다. HIV/AIDS는 원숭이에서, 신종플루는 조류에서, SARS는 사향고양이 등 야생동물에서, MERS는 낙타에서 사람에게 감염되었다. SARS와 MERS는 모두 박쥐에게 있는 바이러스가 다른 동물에게 옮겨졌고, 이 동물들로부터 사람에게 전파되었기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박쥐로부터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앞으로 또 다른 신종 바이러스 질병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은 동물로부터 감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다. 그것은 동물들을 잘 보호하고, 동물들이 아프지 않도록 사람들이 먼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HIV/AIDS의 경우 누군가 감염된 원숭이의 피 등과 접촉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고, SARS의 경우 야생동물을 식용으로 섭취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산림이 파괴되면 동물들의 서식처가 없어지고, 먹이를 찾기 위해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 조류들의 경우에도 먹이를 찾아 이동하는데 사람들이 바다와 호수 등을 개발하게 되면 역시 사람들과의 접촉이 일어나게 된다. 또한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직접적으로 동물을 만지거나 먹는 일이 발생한다. 과거에는 이런 일이 있어도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으로 빠르게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한 곳에서 시작한 신종 감염병이 전 세계로 언제든지 퍼질 수 있다.

### 감염병으로 고통 받는 이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명령하신 것은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이었다. 이 말씀은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땅과 생명체들을 다스리는 청지기 같은 존재라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정복하라"는 말씀을 자연을 파괴하는 것으로 오해한다. 땅과 생명체들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적극적으로 보호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도우라는 것이다. 이런 오해는 정복을 인간들이 행하는 '정복전쟁=착취'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복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질서가 세워지지 않은 곳을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람뿐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창조하셨다. 이런 생명체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땅이 풍성하게 잘 가꿔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복이 필요한 것이다.

사람들이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고통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동물들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리어 환경을 파괴하고, 동물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청지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흩어져 온라인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때, 예배당에 모이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속히 코로나19가 잠잠해지길 기도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우리들의 잘못도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아프기 전에 동물들이 먼저 아팠지만 우리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이제 우리가 아파하면서 우리보다 먼저 아팠던 동물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지구의 청지기 사명을 다시 회복하길 기도하고 소망한다.

20200329-1288호-현준_온누리신문 20. 3. 27. 오후 6:33 페이지 12





주일강단



박종길 목사

# 하나님의 마음

룻기 4:13~17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과거로 미래를 제한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승리하십시오."**

룻기는 흉년을 피해서 고향 땅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떠난 나오미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모압에 정착했던 나오미의 가족은 큰 불행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남편이 죽고,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고, 모압 며느리 두 명만 남게 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룻기는 낙심되고 절망된 상황 속에서 나오미와 룻이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절망되고 낙심되는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인생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보아스가 룻을 데리고 갔고 룻은 그 아내가 됐습니다. 그가 룻에게로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룻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그녀가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13절).

나오미의 기업을 무를 가까운 친척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땅은 다시 사서 돌려주는 의무는 감당하기 원하지만, 그의 며느리 룻과 결혼해서 끊어진 엘리멜렉의 대를 잇게 하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마도 땅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이익은 줄 수 있지만, 자기 자손이 되지 않으면서 자신의 자식들과 복잡한 관계에 얽힐 수 있는 나오미와 룻과의 사정에 엮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외국인 여자에 대한 민족적인 편견이 있어서 그가 해야 할 의무를 거절합니다. 가장 가까웠던 친척이 포기하자 그 다음으로 가까웠던 보아스가 나오미의 잃어버린 땅과 대를 잇기 위해 모압 여인 룻을 받아들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절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과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두 여인을 품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지난 시간의 잘못과 죄로 판단하지 않고, 제한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품어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은 십자가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값을 독생자 예수님이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너무 소중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집을 떠나 세상으로 나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악의 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고, 다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채무증서를 다 없애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슬러 대적하는 조문들이 담긴 채무증서를 제거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서 없애 버리셨습니다"(골 2:1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거절 받으신 기억이 있습니까? 거절 받은 마음의 쓴 상처가 있습니까? 사람은 거절해도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면, 언제나 우리를 품어 주십니다.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에게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자손을 주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름을 떨치기를 바랍니다. 그가 당신 인생을 회복시키셨으니 노년에 당신을 보살펴 줄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며느리이자 일곱 아들보다 나은 그 며느리가 그를 낳았으니 말입니다' "(14~15절).

하나님은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자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오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룻기를 보면서 우리가 회복되는 과정을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모압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모압으로 갔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보기 좋고, 아무리 즐겁고, 행복할 것 같고, 우리를 지켜줄 것 같지만 모압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모압, 소돔과 고모라는 결코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죄는 우리를 회복시키거나 지켜주거나 우리를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회복의 첫걸음은 죄악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모압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은혜의 땅, 소명의 땅,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둘째, 은혜를 찾아야 합니다. 나오미와 룻의 회복은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마침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보아스가 그 시간에 그 밭에 나와서 룻을 보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연이 아닌 섭리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찾아야 합니다.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고, 찾고,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셋째, 미래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염려합니다. 이것이 죄를 가진 인간의 특징입니다. 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고 무너뜨립니다. 죄는 우리의 에덴을 빼앗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과거에 대해 후회하고 원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인정하고, 현재에 대해 불평과 원망으로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을 찾고, 미래는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으며 기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비천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부족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육신적으로 비천한 혈통을 통해서도 역사해 주십니다. 나오미와 룻에게 아들을 낳게 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요셉의 인생도 그랬고, 룻의 인생도 그랬고, 바울의 인생도 그랬고, 베드로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 과거로 미래를 제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자 나오미는 그 아이를 데려와 가슴에 품고 보살폈습니다. 이웃 여자들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며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다윗의 할아버지이며 이새의 아버지가 됩니다"(16~17절).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 같았던 나오미를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가 했던 과거의 잘못들, 룻의 배경으로 두 과부의 미래를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었습니다. 오벳은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예수님도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과 같이 섬기는 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비천하고 연약한 몸으로 오셔서 비천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 주려고 온 것이다"(막 10:45).

오늘 본문 18~21절에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가 '베레스'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시작됩니다. 베레스는 과부였던 다말이 시아버지였던 유다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낳은 아들입니다. 룻기에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살몬'이라는 사람도 나오는데, 그 사람은 기생 라합을 통해 낳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조상 중에 비천한 여인, 이방 여인이 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비천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로 미래를 제한하지 않으십니다. 15절을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일곱 아들보다 나은 그 며느리'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에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형식은 있지만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낫다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과거의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과거의 화려함 속에 속지 마시고, 과거의 실패, 비참함 속에 머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로 제한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시니 우리가 고백한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히 4:14~16).

우리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계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과거로 미래를 제한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20200329-1288호-현준_온누리신문 20. 3. 27. 오후 6:33 페이지 13



조선 교회사(史)가 곧 한국의 근대화다

# 서양 선교사 눈에 비친 19세기 조선의 실상

## 그 못살던 나라 조선이 세계 중심의 대한민국으로!

조선 교회사(史)가 곧 한국의 근대화다. 기독교가 한국 근대화를 이끌었기 때문이다. 기독교가 조선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한국의 근대화는 불가능했거나 아주 많이 늦춰졌을지도 모른다. 한국 근대화의 중심에 기독교가 있다. 서양에서 온 선교사들의 헌신과 희생이 한국 근대화의 씨앗이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조선에 들어온 서양 선교사들은 의료와 교육, 여성운동과 계몽운동, 상업장려운동과 독립운동을 이끌면서 우리 민족의 기적 같은 역사를 써 내려갔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은 그 아름답고 빛나는 조선의 선교역사를 분명히 직시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했던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 사명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선교사들은 하수가 섞인 물이 유행병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역사는 기적의 역사다. 기적이라는 표현 말고는 그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반세기가 조금 넘는 그 짧은 시간 만에 GDP(국내총생산) 세계 10위(2018년 기준), 30-50클럽가입(1인 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국 5천만 명 이상) 등 전례가 없는 놀라운 성장과 발전을 이룩했다.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변모한 세계 유일의 국가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역사 자체가 곧 기적이요, 최고의 자랑이다.

우리나라의 눈부신 성장과 발전의 중심에 기독교가 있다. 기독교가 유입되면서 한국의 근대화를 이끌었고, 기독교의 선한 영향력이 나라의 성장과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사를 되짚어보면 신앙의 선배들이 몸소 보여준 희생과 헌신 그리고 나라사랑이 잘 드러난다.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 관리들의 착취에서 비롯된 야만스럽고 나태한 조선인들의 삶

19세기로 가보자. 당시 조선은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었다.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손색없던 나라 조선이 임진왜란 이후 급격히 쇠퇴하더니 조선 후기에 들어서는 풍전등화 신세가 됐다. 그 위기는 고스란히 백성들의 고통으로 이어졌다. 서양 선교사들이 당시 조선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기록했다.

19세기 중반 천주교 선교사들이 기독교 선교사들보다 먼저 조선에 왔다. 1845년 10월 12일 천주교 선교사 다블뤼 주교가 조선에 당도했다. 다블뤼 주교는 조선의 실상을 〈어릿골 서한〉과 〈조선사 입문을 위한 노트〉에 기록해 파리외방전교회본부에 보냈는데 그 내용이 참으로 끔찍하다.

"조선의 양반들은 평민에게 지독한 폭정을 가한다. 돈이 없으면 평민에게서 착취, 약탈, 불법 구금, 아무도 제지 못한다. 관리나 수령들도. 양반들은 논이나 집을 사고도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 이것이 관습이다.

국왕(철종)은 수입이 거의 없고, 백성들은 굶어 죽는 반면, 어떤 대신들은 넘칠 만큼 풍족하게 산다. 국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왕국의 주요 대신들은 부와 쾌락, 권력으로 넘쳐난다. 백성들은 갈팡질팡하며 임종 직전의 극한 상황이다."

당시 조선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 속에서 처절하게 살고 있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더 가슴 아픈 기록은 다블뤼 주교의 눈에 비친 조선인들의 모습이다. 그는 조선인들을 '반야만적의 상태' 라고 기록했다.

"조선인들은 돈을 정말 좋아하며 돈의 가치를 거의 알지 못하여 낭비해버린다."

당시 조선인들은 폭식습관도 있었다고 한다. 다블뤼 주교는 조선인들의 폭식습관을 매우 자세하고 길게 저술했다.

"조선인들은 특별한 탐식과 식욕을 가진 대식가다. 많이 먹는 것이 명예로운 일이며, 질보다는 양을 중시한다. 노동하는 사람들의 식사량은 1리터의 쌀밥으로 많은 사람들이 2~3인분을 쉽게 먹어치운다. 64세나 65세가 다 된 사람은 식욕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5사발을 없앴다. 과일을 대접할 경우 가장 절제하는 사람도 10개 정도는 먹으며 종종 30개, 40개, 50개를 먹는다. 날고기 특히 곱창과 생선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리이다. 하지만 이를 식탁에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보자마자 먹어치운다."

길모어 선교사는 조선인들의 야만스럽고 나태한 삶이 관리들의 착취에서 비롯됐다고 평가했다.

"백성들이 일할 어떠한 동기도 갖지 못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관리들로부터의 강압의 위협이 없는 동안에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비축이 탁월한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그들이 대항할 수 없는 부패하고 탐욕스러운 관리들에 의해서 갈취당하기 십상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무관심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라는 사실의 증거가 된다."

### 당시 조선의 실상을 조명하는 이유 우리나라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기억하려고

19세기 후반 개항 이후 더 많은 기독교 선교사들이 조선에 왔다. 그들의 보고서와 서한에서도 당시 조선의 실정에 대한 평가와 기록이 남아있다.

당시 조선을 찾아 온 선교사들은 처음에는 조선이 대단히 부강한 나라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 좁은 나라에 외양간이 그렇게나 많은 것을 보고 그리 생각한 것인데 대단한 착각이었다. 조선 땅에 발을 내딛자마자 그 생각이 심각한 착각이었음을 실감했다고 한다. 서양 선교사들은 조선의 초가집을 외양간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 좁은 나라에 외양간이 그렇게나 많아 보였으니 착각할 법도 하다. 당시 조선이 얼마나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서양 선교사 대부분이 조선의 위생상태를 지적했다. 아펜젤러 선교사도 첫 번째 연례보고서에서 조선의 비위생적인 생활을 기록했다.

"서울 거리는 좁고 불결하기 때문에 늘 오물이 널려있습니다. 빈민들의 집은 매우 원시적으로 진흙으로 지어져 있으며 작고 낮으며 음침하고 불결합니다."

릴리어스 언더우드 선교사도 저서에서 조선의 위생문제를 많이 언급한다.

"해마다 여름이면 전국적으로 이 유행병을 겪는지는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 중 하나이다. 모든 오물이 불결하고 좁은 도랑으로 흘러내려 도랑은 종종 폐물로 막혀 도로로 흘러넘칠 정도가 되었다. 우물은 가까이에서 더러운 의복을 세탁한 배수로 오염되어 있으며 썩은 야채들이 도로와 집의 창문아래에 수북이 버려져 썩고 있다."

"기름 먹인 종이 위에, 더 정확하게는 흙바닥 위에 덮여 있는 돗자리와 먼지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해충들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방과 돗자리에 누움으로써 설사병, 천연두, 콜레라 또는 발진푸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또 죽었겠는가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하다."

당시 조선은 위생이나 의료에 대한 개념이 전무했다고 볼 수 있다. 언더우드 선교사와 그의 아내가 평안도 지역에서 전도여행을 하던 중에 한 집에 머물렀는데 그 집에 천연두를 앓던 자녀가 있었다.

"우리는 그 오염된 작은 방에서 먹고 잠을 잤으며, 담요를 그곳에 펼쳐놓았고, 트렁크를 열어놓았으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전염병에 노출시켰던 것이다."

외과의사이자 선교사였던 알렌은 저서 〈조선견문기〉에서 웃지 못 할 일화를 남겼다.

"어떤 환자에게 마전자(스트리크닌)가 함유된 약을 한 병 주고서 하루에 세 번 병의 눈금만큼 먹으라고 지시한적이 있다. 병이 속히 낫고 싶은 마음에서 그는 한 번을 먹어서 좋을 것 같으면 스무 번을 먹으면 좋지 않겠냐는 이유로 한 병을 단번에 마셨다. 그래서 그 사람은 스트리크닌 중독에 걸려 해독하는데 힘이 들었다."

당시 조선은 문명이 도래하기 전이었다. 따라서 문명 이후 사고방식으로 당시 실상을 보면 생활수준이 매우 낮고, 낙후되고, 불결한 나라였다. 그러나 서양 선교사들의 눈에 비친 조선인들의 긍정적인 면도 많았다. 조선인들의 생활을 '반야만적' 이라고 평가했던 다블로 주교는 조선인들의 공동체 정신과 상호부조 생활에 대해서는 유럽보다 우월하다고 극찬했다. 또한 판소리도 유럽의 연극보다 훨씬 자연스럽다고 평가했다. 조선 사람들의 제지기술도 서양인들의 부러움을 샀다.

구한말 조선은 타락하고, 가난하고, 불결했다. 당시 조선의 실상을 조명하는 이유는 우리 민족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결코 아니다. 그렇게 못살던 조선이 기독교와 만나면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성장했는지를 기억하려는 것이다. 어두운 조선에 불을 환히 밝힌 서양 선교사들과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아 지금 이 시대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1288호 20200329 게시판_925호 편성표 게시판(15면없음) 20. 3. 27. 오후 6:34 페이지 1



##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3부 오전 11:30 본당
4부 오후 1:50 본당
5부 영어예배 오후 4시 경찬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본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본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최용준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임선양 팀장(010-9782-7733)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홀
문의: 김종수 팀장(010-7303-1603)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 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홀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홀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홀
문의: 이강천 팀장(010-5594-9206)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성철 집사(010-3660-7135)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쉼터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 / 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8호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따갈록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4: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땅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2F Library / 다문화 예꿈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청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케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일 13:00 Peace 305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예배 주일 11:00/봉사자예배 9:30/네팔어예배 10:30 제2센터/차세대 11:0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평택 Love Hall

**남양주M센터(010-3937-3927)**
열방예배(한국어) 주일 11:30 301호 / ANEWS예배(영어) 주일 16:00 301호 / 힌디어예배 토요일 19:00 301호 /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304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집사(010-2539-5665)
나지원 팀장(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모임(샬롬이스라엘)**
일시: 매주 토 오전 8시~10시
장소: 서빙고 시온홀
문의: 010-8550-7930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홍숙의 집사(010-3003-5910)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셔틀운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서흔주 선교사(010-3245-0710)

**아프가니스탄 중보 기도모임**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 12:30
장소: 선교관 202호
문의: 이신숙 집사 010-3212-2664

**일.하.세. GUM예배**
시간: 매 3째주 수요일 오전 8:30
장소: 서빙고 캠퍼스 선교관 101호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오전 10:30 신관 4층 누리홀

**온누리신문 취재기자 모집**
대상: 문서사역 헌신자(경력자 우대)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기명기사, 최종학력증명서
문의: 02-3215-3196, khj@onnuri.org

**선교사 숙소 도배 봉사자 모집**
내용: 파송선교사를 위한 원룸(1개) 전체 도배
모집: 경험이 있거나 섬김을 원하는 봉사자
일시: 추후 협의
문의: 010-2902-2763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 양 재
02.573.9686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김효섭 팀장(010-4711-1183)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채플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청년부)**
갈렙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9:00(발달장애인 4세~고등부), 11:00(발달장애인 대학부, 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Cristian Neira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924-2703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문의: 서보희 총부(010-7235-0354)
*환우중보, 심방, 전도(사랑홀 환우 요청함)

**양재 샬롬기도회**
대상: 나라와 하나 됨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
매주 월 오후 7시 30분 양재 JDS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3월 2일 재개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 10~12시 반 경찬홀
문의: 김은지(010-3285-1726)

**인도중보기도모임**
일시: 매월 두 번째 월 오후 7시 30분
장소: 양재 온누리교회 충성홀
문의: 010-2735-3807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초빙**
분야: 기독교상담학
접수: 4월 20일~27일 17:00까지
문의: 02-570-7381
*www.ttgu.ac.kr 참조

## 부 천
032.322.9686

**주일예배**
1부오전7:00/2부오전9:00/3부오전11:30/4부오후2:00/5부오후4:00(대청예배)/6부오후7:00

**새벽기도** 월~토 오전5:2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오전 9:00, 11:30 / 유치부-오전 9:00, 11:30, 14:00
유년부-오전 9:00, 11:30 / 초등1부-오전 9:00
초등2부-오전 11:30 / 유초등부-오후 2:00
중등부-11:30 / 고등부-10: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오후 7:30

**한사랑예배(탈북민)** 매주 오후 2:00 3층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매주 오전11:30 3층 꿈아이홀

**어린이영어예배(JEM)** 오전 9:00 기쁨홀

**중국어예배** 매주 오후 2:00 두란노홀

## 수 원
031.895.6500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 4부 오후 2:00 / 5부 오후 7:00

**대학청년(주일)**
대학부 오후 2시(경찬홀) / 청년부 오후 3시(믿음홀)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온누리워십** 매주 수 오후 7:30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부 오전 9:00, 11:30 드림홀
유아부 오전 9:00, 11:30 조이홀
유치부 오전 9:00, 11:30 소망홀
유년부 오전 9:00(초1~3), 11:30(초1~2) 사랑홀
초등부 오전 9:00(초4~6), 11:30(초3~4) 경찬홀
소년부 오전 11:30(초5~6) 믿음홀
중등부 오전 9시 비전홀 / 고등부 오전 9시 믿음홀

**차세대 영어예배** 오전 11:30 비전홀

## 대 전
042.825.3642

**주일예배**
1부 오전 7:1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3부 오전 11:30 본당 4부 젊은이예배 오후 14:30 본당, 5부 대학부예배 오후 14:30 누리홀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본당
토요새벽기도회▸ 매주 토 오전 6:0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36개월~7세) 오전 9:00
꿈땅(초1~초6) 오전 9:00
영아부 오전 11:30 유치부 오전 11:30
유년부 오전 11:30 소년부 오전 11:30
초등부 오전 11:30 중등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9:00

## 남양주
031.56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 2부 오전 11:30 본당 / 3부(청년) 오후 2:00 본당 / 4부(저녁) 오후 7:00 본당 / 북향민 주일 11:00 온유홀 / 다문화 토요일 12:00 온유홀

**외국어예배**
힌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1호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4호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 3층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오전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오전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오전 9:00 2층 꿈땅홀 / 초등부 오전 11:30 2층 꿈땅홀 / 중등부 주일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주일 오전 9:00 기쁨홀

## 평 택
031.651.9680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오후 2:00 본당(대학청년)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수요일 오후 1:30 3층 파워웨이브실
수요오전여성예배 수요일 오전10:30 본당
수요영성예배 수 오후 7:30 본당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아이 오전 11:30 예꿈실
꿈이자라는땅 오전 9:00, 11:30 꿈땅실
파워웨이브 오전 11:30 파워웨이브실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20 본당

**외국어예배**
몽골어 예배 11:30 평택M센터 Love Hall
인도네시아어예배 11:00 인도네시아 쉘터

## 인 천
032.437.9686

**성인/차세대/사랑부예배**
파워웨이브(중고등부) 예배/국제예배/사랑부 예배 제너셈 7층(송도동 179-1), 대학청년부 제너셈 7층(송도동 179-1)

**주중예배**
수요여성/수요저녁/새벽예배: 제너셈 7층(송도동 179-1)

**주일예배**
성인예배 9:00/ 11:20/ 13:30
차세대예배 영아/유치/유년/초등/사랑부 11:20, 꿈땅1부 9:00, 파워웨이브1부 9:00, 파워웨이브2부 11:20, 헤븐리키즈 오후 13:4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2시, 몽골어예배 오후 2시

## 강 동
02.47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 2부 오전 11:30 본당
3부(프라미스청년) 오후 2:00 본당
프라미스U대학부 오후 2:00 사랑홀

**주일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아이(영아부) 오전 11:30 기쁨홀
예수님의꿈아이(유치부) 오전 11:30 두란노홀
꿈이자라는땅(유년부) 오전 11:30 드림홀
꿈이자라는땅(초등부) 오전 11:30 사랑홀
파워웨이브 오전 9:00 사랑홀
사랑부 오전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20 본당
수요오전예배 오전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본당

## 양 지
031.331.8171

**주일예배**
1부 예배 / 9:00 / 2층 김사무엘홀(본당)
2부 예배 / 11:30 / 2층 김사무엘홀(본당)
3부 두드림예배 / 14:30 / 지하1층 박모세홀(대청)

**주일 차세대예배**
드림씨드(영아) / 11:30 / 2층 드림씨드홀(본당 영상 중계예배)
예수님의 꿈아이(유아) / 11:30 / 지하1층 무어홀
예수님의 꿈아이(유치) / 11:30 / 지하1층 위더슨홀
꿈이 자라는 땅(유년) / 11:30 / 2층 아펜젤러홀
꿈이 자라는 땅(초등) / 11:30 / 2층 스크랜턴홀
파워웨이브(중·고등) / 11:30 / 지하1층 박모세홀

**주중예배**
새벽예배(월~토) / 5:20 / 1층 시안홀

1288호 20200329 게시판_925호 편성표 게시판(15면없음) 20. 3. 27. 오후 6:34 페이지 2



# 온누리교회

http://www.onnuri.org

## 국내 온누리교회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 (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이상준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1길 70
  횃불선교센터
- **부천**
  **윤길중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신기섭 목사** (031) 895-6500
  1709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이해영 목사** (031) 565-9686~8 (대표)
  1194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 **평택**
  **손신국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길 61 2층
- **인천**
  **서경남 목사** (032) 437-9686 (대표)
  21984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84번길 24 제니셀 7층
- **강동**
  **노치형 목사** (02) 475-9686
  05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도육환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추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 해외 온누리교회

■미서부

- **얼바인**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네이퍼빌 시카고**
  **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노스 시카고**
  **서재범 목사** 1-847-571-8687
  1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USA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박재영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송영동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190
  18 MAIN Ave. Lidcombe NSW2141 Austrlia
- **오클랜드**
  **유현목 목사** 64-21-0810-3132
  41 Centorian Dr. Mairangi, Auckland. New Zealand

■일본

- **통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이영선 목사** 81-6-6121-2015
  (542-0083)Naniwa 3F 1-3-19Higasisinsaibasi Chuoku Osakasi Japan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야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야치요**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중동

- **아부다비**
  **김태완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ir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 **베트남**
  **정재욱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중국

- **북경**
  **강부호 목사** 86-10-5301-9700
  北京市 朝阳区 来广营西路 江大物业(内大地公司)
  Beijingshi ChaoyangQu Laiguangying Xilu Jiangdawuye (Dadigongsi)
- **단동**
  **채기석 목사** 86-415-313-6811
  中国 辽宁省 丹东市 开发区 口岸贸易区 1区 D组 102号 韩国人 教会 王英
  ZHONGGUO LIAONINGSHENG DANDONG-SHI KAIFAQU KOU'AN MAOYIQU 1QU DZU 102HAO
- **대련**
  **강은수 목사** 86-411-8228-5235
  辽宁省 大连市 中山区 春园里 春海巷二巷(526路 炮台山终点站)
  Liaoning-Sheng Dalian-Shi Zhongshan-Qu Chunyuan-Li Chunhaijieerxiang (526lu Paotaishan zhongdianzhan)
- **상해**
  **김관수 목사** 86-21-5422-5801
  中国 上海市 闵行区 漕宝路 1243号 3楼388室
  Shànghǎishì Mǐnhángqū Cáobǎolù 1243hào yōngwèishāngwùdàshà 3lóu 388shì
- **청도**
  **최영민 목사** 86-532-8801-2930
  中国 山东省 青岛市 崂山区 香港东路69号 凯旋山庄 27号楼 1楼 网点
  Zhongguo Shandongsheng Qingdaoshi Laoshanqu Xianggangdonglu69 Kaixuanshanzhuang27haolou 1lou Wangdian CHINA

##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재훈

###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이상준 윤길중 신기섭
김상수 이해영 손신국 서경남
노치형 도육환

◈부목사(전임)
강미향 강지영 고범석 권용갑
길혜영 김대진 김도균 김도윤
김미정 김병조 김성욱 김성웅
김소리 김승수 김승완 김승훈
김영배 김영창 김요성 김용민
김윤식 김재석 김재승 김정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혜희
김태용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희태 렵문홍 문영재 문장원
박만규 박시형 박성은A 박성은B
박부엘 박성천 박세웅 박천종
박철웅 박태영 박형준 배행삼
백인규 변대섭 서 현 송석근
송재호 신동식 신원석 스티브차
양성민 양재경 여성민 오 민
오은규 원유경 유수열 유승현
유영순 유승현 유진아 윤경숙
윤석원 윤현규 이강현 이기복
이기원 이기진 이기훈 이길탁
이비오 이상진 이서진 이윤재
이원진 이지원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준인 이준호 이찬우
임용성 전신익 전재표 정상훈
정한효 정현석 정형권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준목 조현수
조호영 지대근 최성민 최성석
최용준 최혁중 한화수 한충희
홍기완 허원희 황종연

◈전도사(전임)
김기락 김선재 김한국 안사무엘
이우람 신현민 장재원 전병천
정성진 최종현 최대흥 최성규
하성희 하청훈 한은선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박이호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선기 이기복
한정국

◈부목사(파트)
김기범 김바울 김병철 김세현
김종영 김창성 김혜경 네트라
렌베릭챌린스 매주매뉴릭 민현식 바닷라십팀
박씨마 서수민 성루아바돔 샤카르
이원준 이승윤 이진이 유승덕
윤치연 임선아 제인량 최일관
차제이미 코비스태안

◈전도사(파트)
강정모 고원규 권수진 권은영
권영현 김근희 김두일 김동규
김세환 김승겸 김수영 김앤드류
김은하 김은혜 김용태 김영신
김정미 김정호 김지선 김진성
김주영 김종균 김태영 김태주
김태환 김한국 나지혜 니씨타토요
노동준 노태규 민혜영 박근명
박미애 박소망 박영규 박이호
박영우 박유진 박지수 박찬양
박태훈 박현식 빌 케 배명지
백승현 배윤진 서영찬 서영철
송동주 송유진 송은애 송우함
승소영 신기한 신대종 신동혁
신현아 양주영 여지휘 여현구
오국헌 오명도 오준현 오현교
용상은 우승민 우현석 윤경선
윤신혁 윤수신 윤슬기 윤지은
윤준석 윤태정 윤효정 이경건
이경아 이미희 이사무엘 이상관
이상은 이선영 이성광 이세영
이송희 이수호 이승기 이신임
이엘렌 이용민 이웅희 이은정
이은희 이진기 이진수 이찬양
이태호 이호준 이현석 이향순
임광명 임노완 임송아 임지성
임정민 장광석 장미숙 장새힘
장윤진 전소리 정순덕 정에스더
정연상 주영상 주하늘 지수정
진성희 최규종 최명구 최은영
최선재 최정현 최휘준 표명철
한영철 한용태 허루슬란 황귀희
황연신 황유일 khagvasuren
Gan-Otgon Donald Joshua Wabwire

◈사역장로
강기석 강인지 강의선 강찬석
고광필 구재영 권도원 권영석
권칠준 김경선 김경철 김광동
김광선 김기호 김남열 김명종
김명철 김석인 김선래 김선탁
김성묵 김성순 김상인 김수광
김수역 김수웅 김승열 김영수
김 완 김용성 김 웅 김유식
김원규 김원중 김윤식 김이곤
김인화 김종건 김종성 김종승
김주흥 김진국 김창욱 김철수
김하중 김학모 김현철 노재한
노흥규 류지영 문성기 문장극
문형남 박 공 박병의 박상송
박석봉 박영태 박용국 박찬빈
박태성 배종수 백남인 백승웅
백호현 백흥기 상병선 서진봉
서찬교 서창희 성창섭 손한기
송만석 송영태 송유신 신만인
송재길 송창도 신창구 신현아
신현종 심재욱 심창구 안광민
안국영 안성영 안종인 양재수
양유식 양주현 우광방 원우현
오성연 오준현 유기홍 유형주
유완영 유재천 윤성섭 윤형주
유의존 윤영섭 이건재 이관수
이강범 이두송 이만식 이무웅
이국주 이상욱 이영걸 이영세
이병현 이옥연 이용경 이용하
이영철 이용대 이재준 이재호
이우곤 이장남 이 철 이한열
이종순 이화영 이희주 임광택
이현조 장형준 전구영 전정하
장양희 장현영 정병균 정보원
장강무 정영열 정용화 정재탁
정재현 정청의태 조규상 조성근
조항진 주수일 주웅일 차승철
천영무 최득린 최 명 최선수
최진성 최창규 최창수 최충길
최희영 피터웰디 편무옥 하영철
하용기 한규종 한덕종 한종대
한형식 함선호 허형석 호종일
홍기명 홍덕표 홍종철 황영옥
황용오 황재규

◈시무장로
강경국 강동수 강부순 강신익
강영재 강은철 강창재 강철호
강태욱 교다이라 고영주 구본영
권순형 곽진성 곽희준 권득한
권오습 권오현 권용성 권용한
금세종 김경돈 김관근 김관식
김광하 김기섭 김기영 김남식
김도영 김동언 김두진 김만순
김민찬 김명세 김명희 김명훈
김병순 김병옥 김상섭 김상집
김선호 김성균 김성종 김성진
김성철 김신원 김연상 김영관
김영욱 김영한 김영환A 김영환B
김영기 김용호 김웅배 김 원
김의득 김인선 김장열 김재욱
김재일 김정훈 김종호 김준규
김준영 김준용 김준홍 김지현
김해기 김형경 김철민 김형경
김화수 김효규 김형식 김형중
나 영 나영욱 나광욱 나상권
남상욱 남영현 남주언 노기홍
노하수 남정진 명영찬 문쌍찬
문형남 류지범 문창호 문형남
민문기 박구병 박규명 박대호
박덕현 박동현 박무원 박명균
박명률 박봉래 박승수 박승국
박영태 박설환 박승우 박영국
박재두 박치완 박승현 박일구
박형민 박흥규 박형준 방찬종
배 문 배기영 백종선 백종욱
배형규 성주명 백종선 서성렬
서달석 서명수 서명주 손기철
서성현 송동섭 송영범 송종환
손태용 신동기 신명각 신민호
송호철 신 섭 신철우 신철호
신현승 심길섭 신상달 심희돈
안동혁 안용태 안상헌 양상식
양춘경 양충식 오 명 오범규
오상욱 오성훈 오이식 용내문
우승구 원종호 유병진 유재홍
유 형 육동건 윤석우 윤석주
이경휴 이광순 이경찬 이기증
이길수 이남수 이남식 이동규
이동욱 이동희 이백용 이봉의
이상기 이상도 이상율 이석일
이수완 이승배 이우경 이영근
이영복 이영찬 이은일 이인용
이장로 이재경 이재광 이재규
이정구 이정근 이종길 이종우
이종우 이종철 이태열 이태환
이학일 이해달 이헌규 이홍선
임광순 임병수 임상범 임정열
임현태 임호열 임 훈 임희창
장경문 장경식 장 광 장광열
장규환 장문석 장선철 전영수
전한백 정광열 정대서 정명호
정문규 정상기 정수엽 정영규
정영기 정영주 정영택 정운섭
정운오 정승화 정진하 정진호
정태경 정파종 정학영 정희원
조대식 조대희 조병현 조성수
조성현 조성현 조성환 조진호
조청구 조희동 주재량 진종구
차준구 차준한 최도성 최민철
최봉림 최상근 최석민 최성완
최용재 최주관 최한우 최현재
최호림 하성기 하주헌 한갑수
한백진 한복규 한상규 한양희
한광석 한창경 한춘희 한공식
함일성 함정철 허광수 허복만
허영남 허영한 허필우 홍범식
홍해남 홍의택 홍정표 홍충선
홍호일 황동원 황윤일 황의서

◈명예장로
김종수 마흥규 박동순 박찬구
김형규 이용만 이원로 이혁상
임대지 장옥룡 장승복 정광택
정병주 정상건 지성한 채수삼
최창걸 황용식

◈협동장로
강승모 김갑선 김정훈 김 준
남영태 류수광 라파드렉스 박자인
박형규 양호승 우상근 유재건
이경희 전태경 정지석 주치수
최대화 최원호 최종훈 추교명
함지언 황재익

◈성가사
강순영 강중현 강혜영 김기덕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세일
김형준 김정환 김희정 김혜경
박정규 손창우 송정희 박용규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신수정
유선애 윤은희 윤지현 이미선
이명근 이신영 이수정 이성민
이세미 이수연 임진순 조익현
전병곤 전지영 정성미 채미현
최경열 최영은 최윤석 최지선
최재영 최혜경 최훈희 홍용식
현상준

◈반주자
김기아 김병성 김선경 김성규
김수현 김순인 김연아 김은경
김은섭 김은실 김은영 김인영
김주나 금민희 남궁진 노성희
박선희 박 숙 박영숙 박진용
방 휘 서 원 석지혜 송효빈
신은혜 안은경 안은영 안지연
양지연 양현선 염주희 우경진
유재경 유지영 윤정희 윤현진
이강석 이나래 이예나 이예은
이예진 이혜진 정경미 정다혜
정지은 조영혜 조한나 최은미
최희정 홍예은 황보승 황대준
허윤선

## 해외 온누리교회

◈담당목사
강부호 강은수 권영환 김관수
김철진 김태완 박신웅 송영동
유현목 이민욱 이영선 요시하라
마나부 전현규 정재욱 정호석
채기석 최영민 니시야마 신 이 치
하카마타 미키 후쿠자와 마키토

◈미주OMA담임목사
김형철 마크최 박재영 서재범
심상현 이성권 이정엽 이중재
정장철

◈부목사
강일영 강일하 강찬호 금동섭
김기홍 김도일 김병성 김인숙
김시연 김진우 김재형 김찬우
김태환 노경호 박대원 박수환
박주영 박종훈 방지남 배성우
백도훈 백인호 변법섭 서성광
신영흠 손미경 엄영기 우윤상
유동우 유정훈 이경호 이미령
이은택 이정주 이한규 이형근
임봉순 오정택 정재홍 전상현
전홍천 정동윤 정승철 정용환
조수정 조의환 진영국 최영진
최 욱 최정무 홍동욱 홍성훈
홍세반 홍정표 BobKoo Joseph Chu Joe Lee Michael Lee

◈전도사
강은주 김성민 김성연 김성진
김성현 김인혜 김정옥 김지현
김진완 김창식 김현경 구혜선
마커스 문하나 박미은 박유리
박종구 박지혜 박향진 박현욱
배윤희 서재욱 설산정 손주은
송민선 신기원 심형진 안대진
안지현 이민혜 이상수 이수연
이은희 이용기 이재경 이주영
이현우 임지훈 윤성민 장성진
장세윤 장유미 지자영 전희동
정 결 정선진 정은숙 정인교
정진영 지자영 조 단 최정수
최지연 최진숙 하보라 하청훈
한현희 코바야시 메구 핸슨오
Christine Daniel Kim Shin David Kim JeanaLee Jeff Yoo Jonathan Kim Rachel Back SamLee Tommie Njobvu

◈장로
고성환 권덕수 김경덕 김수호
김재동 박호택 백 학 손진성
손정래 신중수 이광철 이덕한
이문호 이상덕 이상헌 이준상
여훈필 장민용 장우진 조규배
조성민 허규회 홍관희 홍규석

◈명예장로
김용석

◈협동장로
강광일 강봉림 김경문 김동민
김명훈 김연수 김현중 정두호
정석환 최승호 윤한돈 윤창근
이정기 이재원 임현식 서인택
최대영 김종수

◈성가사
고양숙 김성수 김용재 김좌겸
김준걸 김진용 김현희 남명호
박민규 박선영 박소영 박우람
송희경 이지은 엄지영 여훈필
염혜숙 우아경 유기열 이정민
이정우 이종현 정영진 정현경
조경화 조요셉 홍현철 황애란
황진주

##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정현주, 김현준, 김영선, 홍하영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3215-3193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 소천

**3/20(금)** 찬양 신준환 성도 부친상 고 신택조
**3/21(토)** 경기A 고 손동휘 안수집사
**3/21(토)** 용산 정승혜 성도 부친상 고 정은섭
**3/22(주일)** 성동광진 조미영 성도 부친상 고 조병일
**3/22(주일)** 온누리미션 아랍어예배 강진일 성도 부친상 고 강길원
**3/23(월)** 강남D 전지연 안수집사 부친상 고 전병찬
**3/23(월)** 강남E 이영란 안수집사 시모상 고 유옥순
**3/24(화)** 송파A 차춘근 안수집사 모친상 고 경옥봉

## 온누리 복지재단

**군포하나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 입소, 입교생 모집**
내용: 가출 및 가정복귀가 어려운 남자청소년 쉼터 입소 및 하나로꿈학교(교육청 지정 대안학교) 입교
대상: 입소생(15~20세) / 입교생(경기도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문의: 유호연 팀장(031-399-7997)

**온누리요양센터 및 자원봉사자 모집**
내용: 찬양, 성경읽기 등 봉사자 모집
문의: 이진욱 복지팀장(031-334-9090)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55세 이상 지역주민 무료취업 지원**
신청자격: 서울시 거주 만 55세 이상 구직자(신분증 지참 방문 접수)
주요직종: 경비원, 청소원, 요양보호사, 주차관리원, 조리원 등
문의: 박나희 사회복지사(02-796-7665)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배식 및 설거지 봉사자 모집**
내용: 11:00~14:00 / 점심식사 제공
문의: 김예진 사회복지사(070-7163-2465)

**청파노인복지센터 경로식당 봉사자 요청**
활동일시: 화, 수, 목 9:30~14:30(식사시간 포함)
문의: 이가엽 팀장(02-703-6011)

**번동코이노니아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자원봉사자 모집**
문의: 이영환 팀장(02-985-3609)

## 재 정

십일조, 감사, 주일 헌금: 하나은행 573-810034-10105
해외선교 헌금: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헌금: 하나은행 573-910009-96104
부활절헌금: 하나은행 573-910009-99004
* 은행계좌로 송금시 이름과 주민번호 앞 네 자리 또는 여섯 자리(김모모501010)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 담

■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선교관 지하 1층)**
**상담접수:** 02-793-2997~8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상담:** 신앙과 심리상담(개인, 부부, 아동, 청소년, 가족)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U&I(학습 성격 유형/진로 검사)
**특수상담:** 법률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30~12:00 인터넷 중독 상담

■ 양 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 자동문 안쪽)**
상담접수: 570-7536~7(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영어 상담 가능)**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일요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세무 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 광고

**생명의 삶 4월호 출간 및 무료택배 서비스**
내용: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출입이 힘든 성도님들을 위해 두란노에서 생명의 삶을 구입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3월 31일까지 택배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전화 문의: 서빙고(02-796-2310), 양재(02-573-4704)
문자 문의: 서빙고(010-3229-2310), 양재(010-7254-1059)
카톡 문의: 서빙고(두란노문고 서빙고 온누리교회점), 양재(양재두란노서점)

1288호 20200329 게시판_925호 편성표 게시판(15면없음) 20. 3. 27. 오후 6:35 페이지 3



CGNTV 개국 15주년 특집 다큐

15th ANNIVERSARY

# 땅 끝의 증인들

아무도 찾지 않는 땅의 끝,
그곳에 예수님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1편_"집시를 사랑한 부부"



그리스 김수길, 조숙희 선교사

버려진 민족 집시를 사랑으로 품는
선교사 부부의 헌신

3월 29일 오전 10시 30분 방송

2편_"바누아투로 간 사나이"



바누아투 원천희, 김난주 선교사

부족 문화를 지키며 살아가는 산족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이야기

4월 12일 오전 10시 30분 방송

3편_"우리가 사랑한 마지막 시간"



필리핀 박누가 선교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필리핀을
사랑한 故 박누가 선교사의 기록

4월 26일 오전 10시 30분 방송

<땅 끝의 증인들>은 CGNTV 웹사이트,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YouTube CGNTV 땅 끝의 증인들 검색

정기후원 [ KEB하나은행 573-910002-67804 ] ARS 060-700-1660 문의 02-796-2243 CGNTV